

불안한 삶과 집: 성소수자 집을 말하다
- 트랜스젠더 남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

2022. 12.

성소수자 주거권 네트워크

목차

1 장 조사 개요	1
1.1 조사 배경 및 목적	1
1.2 조사 방법 및 대상	2
1.3 질문 내용	4
1.4 용어 설명	5
2 장 조사 내용	7
2.1. 집의 개념	7
2.2. 성별 이분법 장소의 전형으로서 원가족 집의 경험	9
2.3. 원가족으로부터 독립과 주거 불안	16
2.4. 틈과 경계 만들기: 관계, 인정, 안정	32
2.5. 불안한 미래 전망과 주거 불안	48
2.6. 요약 및 결론	51
제 3 장 보론: 제자리를 벗어난 신체와 탈구의 감각	53

<표 차례>

<표 1> 인터뷰 대상자 특성	3
<표 2> 심층면접 질문 내용	5

<그림 차례>

<그림 1> D 씨의 삶의 서사를 보여주는 물품들	36
<그림 2> E 씨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집 꾸미기	37

1장 조사 개요

1.1 조사 배경 및 목적

성소수자 주거 불안 문제는 인권운동 단체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예컨대 2010년 주거권운동네트워크¹⁾, 2018년 ‘UN 적정주거 특별보고관’의 주거권 실태 보고서²⁾ 등 시민사회 영역에서 성소수자들의 주거 불안과 이들이 주거 정책에서 배제되는 상황에 대해 지적을 했지만, 산발적이고 개인의 경험적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되며 심도 깊은 논의와 공론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본 단체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성소수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주거 불안의 양상과 이 맥락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많은 수의 성소수자들은 이성애 규범 중심의 사회관계, 성별 이분법 공간 체계, 그리고 인구 재생산을 위해 이성(異性) 부부 중심으로 재편된 주거정책으로 인해 주거권을 침해받고 있었다.

우선 성소수자들은 이성애 규범 중심의 사회관계에서 아웃팅 위협에 시달리며 주거 불안을 경험했다. 예를 들어 원가족 집에서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독립해서는 이웃으로부터 자신의 성소수자 정체성을 보호하고 아웃팅을 방지하기 위해 행동을 단속하고, 소지품, 장식품, 그리고 파트너 관계 등을 숨기는 등 불안하고 위험한 정주환경을 겪었다. 또한 성소수자들은 기숙사, 고시원, 쉼터 등 성별 이분법으로 운영되는 다중 주거시설에 거주할 기회가 제한되며 주거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성소수자 커플의 경우 신혼부부와 혈연 중심으로 구성된 주거정책에서 배제되며 주거의 이동 기회를 박탈당하고 주거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었다.³⁾

이러한 주거 불안은 특히 트랜스젠더에게 더 심하게 나타났다. 트랜스젠더는 시스젠더 여성과 남성에 비해 학력과 소득 수준, 종사상 지위 등에서 더 열악한 위치에 있었고, 또한 트랜지션으로 인한 신체와 목소리의 변화로 인해 여타 성소수자에 비해 이른 나이에 독립함에 따라 더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하는 사례가 많았다.

1) 주거권운동네트워크. 2010. 『집은 인권이다』. 이후.

2) 비마이너. 2018.05.24., “유엔특보, 한국 주거 정책 ‘인권 기준 미달’ 우려”.

3) 성소수자 주거권 네트워크. 2021. 『성소수자, 주거권을 말하다』. 미발행 보고서.

이에 따라 본 단체는 성소수자가 처한 주거 불안의 맥락을 좀 더 다층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트랜스젠더가 처한 주거 불안을 면밀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성소수자 주거 불안에 대한 공론화와 대안을 논하기 위해서는 성소수자를 뭉뚱그려 한 집단으로 호명하는 것이 아닌 성별정체성(시스젠더, 트랜스젠더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주거 불안 양상들을 판별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접근이 필요했다.

본 조사는 따라서 성소수자 중 트랜스젠더의 주거 불안에 주목한다. 트랜스젠더가 처한 주거 불안의 복잡한 경로와 양상, 그리고 이를 야기하는 사회, 문화, 경제적 힘들들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별정체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경험되는 성소수자의 주거 불안 맥락을 더욱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제시하여 심도 깊은 공론화와 적절한 대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1.2 조사 방법 및 대상

트랜스젠더의 주거 불안을 조사하기 위해 바이너리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그리고 젠더퀴어 13인을 면접 조사했다. 여기에 트랜스젠더는 아니지만 인터섹스 1인을 면접조사에 참여시켰다. 인터섹스 1인은 지정 성별 남성으로 살다가 20대 후반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한 사례로 트랜스젠더와 유사한 삶의 궤적을 그리고 있어 면접에 참여시켰다.

면접 대상자는 눈덩이 표집 방식으로 섭외를 했다. 먼저 본 단체와 연계되어 있는 트랜스젠더 인권운동 단체에서 조사 내용에 적합한 대상자를 섭외했고, 이후 이분의 지인들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면접은 2022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진행이 되었고, 온라인(ZOOM)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며 진행되었다. 서울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면접을 진행했으며,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면접을 진행했다. 오프라인 면접 장소는 성공회 용산나눔의집에서 진행했다. 면접시간은 평균적으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면접 내용은 녹취를 해 조사 자료로 데이터화 했다. 각 면접 대상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인터뷰 대상자 특성

ID	성별정체성	연령	성별 정정	지역	주거 형태	비고
A	트랜스젠더 남성	30대	-	서울	셰어 하우스, 3룸, 월세	3인 동거
B	트랜스젠더 남성	20대	-	경상도	투룸, 월세	친구와 동거
C	트랜스젠더 남성	20대	-	경상도	원룸, 월세	
D	트랜스젠더 남성	30대	-	서울	청년임대주택 , 3룸, 월세	
E	트랜스젠더 남성	40대	○	서울	2룸, 전세	
F	논바이너리	40대	-	서울	2룸, 월세	파트너와 동거
G	트랜스젠더 남성	30대	-	서울	2룸, 월세	파트너와 동거
H	인터섹스	40대	○	서울	원룸, 월세	
I	젠더퀴어	20대	-	서울	원룸, 전세	
J	트랜스젠더 남성	30대	○	서울	2룸, 전세	
K	트랜스젠더 남성	20대	-	서울	-	게스트 하우스 생활
L	트랜스젠더 남성	40대	○	제주도	투룸, 연세	
M	트랜스젠더 여성	30대	○	경기도	투룸, 전세	

위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체 면접자 중에 트랜스젠더 남성의 비율이 높다. 총 13명의 면접자 중에 트랜스젠더 남성은 9명, 트랜스젠더 여성은 1명, 논바이너리 1명, 젠더퀴어 1명, 인터섹스 1명이다. 심층면접 조사 처음에 트랜스젠더 남성을 소개 받았고, 이후 이 분의 지인인 트랜스젠더 남성을 소개 받고, 다시 또 지인을 소개 받는 눈덩이 표집 방식으로 인해 이

러한 결과가 나타났다. 면접 대상자가 좀 편향된 측면이 있지만 트랜스젠더 여성에 비해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트랜스젠더 남성의 경험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면접 대상자의 연령대는 20대 4명, 30대 5명, 40대 4명으로 주로 20대에서 40대 초반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모두는 현재 월세 아니면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자가 소유자는 없다. 트랜스젠더 중 법적 성별정정을 마친 면접 대상자는 4명이고, 인터섹스 1인 현재 법적 성별 여성으로 성별정정을 한 상태다.

이 면접 대상자 이외에도 면접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기 위해 본 단체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조사한 『성소수자, 주거권을 말하다』의 구술 중 일부를 인용하기도 했다. 이들의 구술 내용은 『성소수자, 주거권을 말하다』 조사임을 밝혔고, 면접자 표기는 ㄱ, ㄷ, ㄴ 등 한글 자음으로 표기해 본 심층면접의 구술과 구분을 지었다.

1.3 질문 내용

면접 조사는 주로 대상자들이 경험하는 주거 불안(임대인과 이웃 관계, 임대차 계약 시 불이익 경험, 성별정체성에 따른 퇴거 경험 등)에 초점을 두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종류, 점유 형태(자가, 전세, 월세 등), 주거 비용 및 주거비 부담, 원가족으로부터 독립 이유, 이사 경력, 주거 정책, 자신이 생각하는 집의 의미, 향후 주거 전망 등 주거 관련 폭 넓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더불어 면접 대상자들의 주거 불안의 맥락을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유년 시절 경험과 학교, 직장 등에서 자신의 성별정체성으로 인해 차별 받거나 소외 받은 경험 등도 조사를 했다.

<표 2> 심층면접 질문 내용

항목	내용
주거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형태(아파트, 단독/다가구, 다세대 등) - 점유 형태(전/월세, 자가 등) 및 구성원 수 - 주택 내부 환경(면적, 방 수, 내부 시설 만족도 등) - 이웃관계 및 주변 환경(치안, 편의시설, 교통 등) 만족도
주거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월세 보증금 및 임대료 - 한달 수입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 - 주거 관련 대출 여부 및 금액
주거 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한 이유와 시기 - 현재까지 이주 횟수 및 경로 - 현재 사는 집을 선택한 이유 - 향후 이주 계획
주거 불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관련 차별 및 소외 경험(임대인, 이웃관계 등) - 임대차 계약 시 불이익 경험 - 성정체성에 따른 퇴거 경험
주거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 지원 정책 이용 여부 - 주거 지원 정책의 개선점
주거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에게 집이란?

1.4. 용어 설명

■ 성소수자

성적지향 혹은 성별정체성이 주류로 인식되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집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바이섹슈얼(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에이섹슈얼(aseexual), 인터섹스(intersex), 퀴어(queer) 등의 정체성 범주가 포함된다. 정체성 앞 글자를 따서 LGBT,

LGBTI, LGBTAIQ 등의 약어로 표현한다.

■ 성적지향

어떤 성별의 상대방에게 성적 혹은 정서적으로 끌리는지를 나타내는 말이다. 동성애(homosexual), 범성애(pansexual), 이성애(heterosexual) 등이 성적지향 범주에 속한다.

■ 성별정체성

개인이 자신의 성별을 내면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정체화하는가를 나타내는 말이다. 태어날 때 신체의 외면적 특성에 의해 의학적으로 지정되는 '지정성별'(법적성별)과 구분된다. 지정성별과 성별정체성이 일치하는 시스젠더(cisgender)와 그렇지 않은 트랜스젠더(transgender)로 나뉜다.

■ 트랜스젠더

지정성별과 자신이 인지하고 정체화한 성별이 다른 사람을 총칭하는 용어다. 구체적으로 바이너리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로 나뉜다. 바이너리 트랜스젠더는 남성 혹은 여성으로 정체화하는 사람을 말하고,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는 남성과 여성의 성별 이분법에서 벗어난 성별정체성으로 정체화한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트랜스젠더는 바이너리 트랜스젠더를 표현하고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는 논바이너리 혹은 젠더퀴어로 표현하기도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트랜스젠더는 바이너리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는 논바이너리 혹은 젠더퀴어로 표현했다.

■ 젠더퀴어

성별 이분법에 저항하여 고정되고 확고한 성별의 범주를 거부하거나 벗어나는 성별정체성의 실천 혹은 정치적 지향과 이러한 정체성을 지닌 사람을 말한다.

2장 조사 내용

2.1. 집의 개념

집이라는 단어는 다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집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따뜻한 장소, 돌봄과 애정의 장소, 정체성의 근원 등 긍정적인 이미지다.⁴⁾ 또한 알란과 크로우(Allan and Crow)가 말하듯이 집은 공적 공간과 대비되는 사적 공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⁵⁾ 즉, 집은 차갑고 유동적이고 익명의 공적 공간과 대비되어 휴식을 주고, 가족의 유대감과 소속감을 주는 사적인 공간을 상징한다. 이처럼 집은 타인의 감시로부터 벗어나 편안히 쉴 수 있는 장소, 돌봄과 애정의 따뜻한 장소, 소속감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장소라는 의미를 주로 갖는다.⁶⁾

그러나 집이 항상 긍정적인 의미만을 갖지 않는다. 집은 타인의 감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적인 장소로 표상되지만 이것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가족 이데올로기는 가족끼리 함께함을 강조하고, 친밀함과 상호 관심을 부추기며 구성원의 사적인 생활의 경계를 흔들기 때문이다. 예컨대 부모들은 애정과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자녀들의 사적 공간을 감시하고 수시로 드나들며 이들의 행동을 단속한다.

따라서 사적인 공간이라는 집의 의미는 균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집은 남성 가부장의 시선이 작동하며 아내와 자녀들의 행동을 제한하고 감시하는 판옵티콘의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에 페미니즘은 집을 억압의 공간으로 재현하기도 한다. 로즈(Rose)에 따르면 집을 돌봄(애정)의 장소, 사적인 장소, 그리고 안전한 장소 등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단지 남성들의 경험이라고 말한다. 여성들이 경험한 집은 가부장의 억압과 폭력이 펼쳐지는 장소, 숨이 막히는 지긋지긋한 장소라고 말한다.⁷⁾ 윌슨(Wilson)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과 폭력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집은 여성에게 그

4) Somerville, P. 1992. 'Homelessness and the meaning of home: rooflessness or rootless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no. 16 528-39.

5) Allan, G and Crow, P. 1989. *Home and Family: Creating the domestic sphere*. Basingstoke: Macmillan.

6) Cresswell, T. 2012. 『짧은 지리학 개론 시리즈: 장소』. 심승희 역. 시그마프레스.

7) Rose, G. 2011. 『페미니즘과 지리학』. 정현주 역. 한길사. 138.

어떤 것보다 가장 무서운 폭력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⁸⁾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에 모든 페미니스트들이 동감하는 것은 아니다. 후크스(hooks)의 경우 로즈의 입장은 백인 여성들의 경험만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한다. 흑인 여성의 경우 백인 여성이 겪는 성차별 이외에 인종 차별과 문화 차별, 그리고 임금 차별 등 다양한 억압이 교차하는 세계에 놓여 있다. 이러한 세계에서 집은 흑인 여성에게 가해지는 억압이 미치지 않고 돌봄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일종의 틈으로 경험된다. 흑인 여성에게 집은 안전의 장소와 저항의 장소로 경험될 수 있는 것이다.⁹⁾

힐 콜린스(Hill Collins) 역시 후크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녀에 따르면 공적과 사적이라는 뜻이 흑인과 백인에게 다르게 의미화된다고 한다. 흑인에게 사적인 것이 반드시 집이라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백인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공동체 장소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사적 공간이라는 것은 흑인 여성에게 억압적인 공간이기보다는 하나의 자원이 될 수 있다.¹⁰⁾

종합하자면 집은 젠더, 인종, 계급 등 권력이 작용하는 맥락에 따라서 매우 모순적이며 가변적인 장소로 경험된다. 트랜스젠더들에게도 마찬가지다. 트랜스젠더에게 집은 로즈와 월슨의 주장처럼 억압과 폭력의 장소이기도 하며, 알란과 크로우의 주장처럼 사적인 장소, 따뜻한 장소이기도 하며, 후크스와 힐 콜린스의 주장처럼 안전과 저항의 장소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트랜스젠더의 주거 불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겪는 다층적인 집의 의미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8) Wilson, E. 1983. *What is to be Done about Violence against Women?*. Harmondsworth: Penguin.

9) hooks, b. 1990. *Yearning: Race, Gender, and Cultural Politics*. Boston, MA: South End Press. 43-47.

10) Hill Collins, P. 1990. *Black Feminist Thought: Knowledge, Consciousness and the Politics of Empowerment*. London: Harper Collins.

2.2. 성별 이분법 장소의 전형으로서 원가족 집의 경험

■ 성역할의 수행과 불안의 경험

우리는 흔히 이성애 결혼을 통한 다음 세대의 재생산을 미래로 상상하고 그 미래 세대인 현재의 ‘아이’를 절대적인 선(善) 혹은 순수로 취급하곤 한다. ‘다음 세대인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언급은 현재의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을 하나의 방향으로 조직하고 강제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는 미래를 넘겨주는 것이, 즉 아이들의 지속 가능한 재생산이 사회의 우선적 과제로 제시된다.¹¹⁾ 소위 ‘재생산적 미래주의’라 불리는 이 담론은 이성애 중심의 정상가족을 사회의 기본적 단위로 설정하며, 가족을 통해서 아이의 재생산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단순히 개별 아이가 아닌 그 사회의 질서를 상징하는 ‘아이’¹²⁾다.¹³⁾ 예컨대 국내에서 표상하는 재생산의 ‘아이’는 흑인, 장애인, 성소수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국내 정상가족에서 태어난 지정성별 이성애자만이 ‘아이’로 상징되고 표상된다. 따라서 가족은 ‘아이’의 재생산과 미래를 매개하는 주요 장소이자 성별 이분법과 이성애 규범이 펼쳐지는 기초 단위로 기능한다. 예를 들면 정상가족은 성역할 이데올로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자녀들의 신체와 감정을 성별에 따라 이원적으로 재생산한다. 더불어 사회에서 요구하는 성별 역할과 감수성을 잘 체현한 ‘아이’를 재생산하는 것을 가족과 아이의 행복으로 간주하며 다양한 자원을 투입한다. 즉 가족은 우리의 신체와 감각을 특정한 방향으로 배치하고 지향하게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다.¹⁴⁾

이에 따라 가족에서 요구하는 신체 및 감정과 맞지 않고 불일치하는 자녀들은 원가족 집이 매우 불안하고 불편한 장소로 경험될 수밖에 없다. 성별에 따라 다르게 입는 옷, 성역할에 기반한 가족 구성원들의 일상적인 대

11) Edelman, L. 2004. *No Future: Queer Theory and the Death Drive*. Duke University Press: Durham and London.

12) 재생산적 미래주의 개념을 고안한 에델만은 개별적인 아이와 사회 질서가 표상하는 아이를 구분하기 위해 전자를 child, 후자를 대문자 Child로 표기하며 구별한다. 이 글에서는 둘의 구분을 위해 전자는 아이, 후자는 ‘아이’로 표기한다.

13) *ibid.*

14) Ahmed, S. 2021. 『행복의 약속』. 성정혜·이경란 역. 후마니타스.

화 등은 성별 불일치를 느끼는 자녀들에게 원가족 집을 빨리 벗어나야 할 곳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깐 어릴 때 저 어머니가 “여자가 뭐 하면 어땡고~” 그런 말을 좀 자주 하셨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빨리 나가야겠다.’ 생각을 했죠.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C씨, 20대. 트랜스젠더 남성.

“뭔가 화가 확 끌어 올라서. ‘그게 아니야, 나는 그게 아니야. 그렇게 못 살아! 나는’ 그런 말이 여기까지 막 차오르는 것 같은 그런 충동을 느꼈던 것 같아요. 좀 많이 불편했죠. 딸이라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중략… 아주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것 같아요. 한 네 살, 다섯 살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남동생이, 두 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고요. 그 동생을 항상 부러워했어요. 왜 부러워했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동생을 부러워했고. 그리고 이제 옷 입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마랑 투쟁을 했었는데, 분홍색이라든지 치마나 레이스, 스타킹 이런 걸, 이런 걸 입히고 싶어 하셨는데, 저는 너무 그런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입지 않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와 맞지 않는 옷을 계속 입고, 나와 맞지 않는 그런 행동 그런 걸 하기를 강요받았으니까...”

G씨, 30대. 트랜스젠더 남성.

자녀들의 신체와 감각을 이분법적 성별 규범으로 생산하고 통솔하는 원가족의 훈육과 실천은 이것과 불화하는, 즉 성별 불일치와 불쾌감을 느끼는 자녀들에게 G씨의 구술처럼 곤혹, 수치심 혹은 폭력적인 강요로 경험되기도 하며, C씨의 구술처럼 벗어나고 피해야 할 상황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특히 지정성별에 맞게 원가족 부모가 사다주는 옷의 경우 G씨뿐 아니라 대부분의 구술자들이 성별 불일치를 확인하는 기제로 작용하며 원가족 집을 매우 곤혹스런 장소로 경험하게 한다.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릴 때 치마 입히려고 하면 너무 싫어하고, 분홍색 입으면 너무 싫어하니까. 그때부터 좀 제가 입고 싶은

대로 해주셨는데. 이제 부모님 말고 친척분들이 좀 더 그러시는 것 같아요. …중략… 난~ 남자인데 왜 자꾸 이렇게 여자처럼 하고 다니라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B씨. 20대. 트랜스젠더 남성.

또한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 구성원의 호칭은 이 불일치감을 더 심화시켜 원가족 집의 불편한 경험을 더욱 채색한다. “좀 많이 불편했죠. 딸이라고 하고.”와 같은 위의 G씨 구술처럼 가족 구성원의 지정성별에 따른 호칭은 매순간 자신의 성별 불일치를 확인하며 반복적인 불쾌감을 느끼는 상황을 만든다.

“진짜 집에 있으면은 생기는 문제가 호칭 문제라든가. “니네 오빠” 이런 말을 듣게 되잖아요. 어쨌든 같이 있으면은 계속 그런 말을 듣게 되는 부분이죠.”

E씨. 40대. 트랜스젠더 남성.

이와 더불어 트랜스젠더에게 원가족 집은 자신의 지정성별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 따라서 부정되어야 할 곳으로 경험되기도 한다. 원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인정하고 지지할지라도 자신이 부정하고 싶은 지정성별의 흔적이 새겨진 원가족 집은 트랜스젠더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E씨는 이를 “넘을 수 없는 허들”로 표현한다.

예컨대 유년 시절 부모의 요구로 지정성별 모습으로 꾸민 사진이 남아 있는 곳, 지정성별의 역할과 흔적이 새겨져 있는 곳, 그리고 자신의 성별 불일치와 이에 따른 불쾌감을 숨겨야 했던 곳이 바로 원가족 집이기에 아무리 원가족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해도 불쑥, 불쑥 튀어나오는 부정적이고 불쾌한 감각은 넘을 수 없는 허들처럼 극복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트랜지션 후) 많은 친구들이 보통 아직도 대부분 그거를, (트랜지션 전 유년시절) 사진을 다 없애잖아요. 그 모습(트랜지션 전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 자체가, 애초부터 그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 자체가 부담이거든요. 아무리 고맙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내가 TG(트랜스젠더)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있을 때 하고는, 일단 그 사실을 아는 사람하고 있는 거하고는 사실 그 감각이 또 되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원가족은, 이건 약간 넘을 수 없는 허들이 있죠. 원가족이 있는 공간은.”

E씨. 40대. 트랜스젠더 남성.

그러므로 구술자들에게 원가족 집은 성역할의 수행이 요구되었던 곳, 그리고 지정성별에 따른 호칭으로 불리었던 곳,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숨겨왔던 곳, 지정성별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으로 경험되며 자신의 불일치와 불쾌감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매우 불안하고 억압적인 장소로 의미화된다. 예컨대 페미니스트 지리학자들이 얘기한 불안하고, 숨막히고, 지긋지긋한 원가족 집의 경험을 트랜스젠더들 역시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아웃팅, 커밍아웃과 정서적 소외

상술했듯이 집은 공적인 공간과 대비되는 사적인 공간의 성격을 가지며 쉽고 유대감, 소속감을 주는 장소로 성격을 갖는다. 이에 따라 편안한 집, 애정이 있는 집을 만들기 위해 가족 구성원들은 친밀함과 하나임을 강조하며 정서적 공동체로 결속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서적 결속은 가족이 요구하는 삶과 다른 방식의 삶을 추구하는 구성원의 소외를 야기한다.

일례로 가족은 자신들의 정서적 결속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방식의 삶과 행복을 추구하는 구성원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거나 혹은 무시하기도 한다.¹⁵⁾ D씨(30대. 트랜스젠더 남성. 바이섹슈얼)의 경우 자신의 컴퓨터 메신저 대화를 동생이 보게 되며 성적지향이 아웃팅된 사례다. 원가족 부모는 동생을 통해서 D씨의 성적지향을 알게 되었지만 계속 모른 체를 하며 그의 성별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생활이나 경계 이런 게 전혀 없으셔서. 제 앞으로 편지

15) 서울신문과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멍둥’이 공동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성소수자 자녀가 가족에게 커밍아웃을 하거나 아웃팅이 되었을 때 부모의 반응은 ‘대부분 모른 체를 한다’가 5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처: 서울신문. 2021.12.12. “‘성별 이분법’ 학교서 버림받는 그들…등돌린 가정서 떠나는 그들”.)

를 다 뜯어본다거나, 제 일기장을, 박스 안에 넣는 걸 읽어보신다든가... 약간 이런 그거를 그냥 모르는 척 할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저한테 말을 거시거든요. 자기가 그거에 대해, 거기서 본 걸로, 알게 된 걸로. 여동생은 아웃팅하고. 총체적인 난국이었어요. ...중략... 성적지향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무시하셨어요. 못들은 척을 하시더라고요. 아예 모르는 척을 하시고. 계속 집에 가면 결혼 얘기하시고. 이전에 만났던 남자 파트너 얘기하고. 그냥 아예 없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애가 외로워서 그러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동생이 얘기했을 때 말을 흘리고 난 이후부터 그냥 아예... 네.”

A씨(30대. 트랜스젠더 남성)도 D씨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A씨는 원가족에게 성별정체성을 커밍아웃했지만 D씨처럼 무시당하고 한 때의 일탈로 치부되었다. 그리고 가족은 A씨가 호르몬 치료를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그의 사생활 공간을 자주 침범했다. A씨는 가족과 함께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공유하고 인정을 받고 트랜지션을 하고 싶었지만 가족 구성원은 잠시의 일탈로 치부하며 무시로 일관했다.

““호르몬 치료 어떤 거지 한번 보라~”고 그러면, 되게, 되게 싫어하고 안 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애가 요새 무슨 짓 하고 돌아다니냐?’ 막 이렇게 막 감시는 하고. ...중략... 커밍아웃할 때는. 근데 “엄마 나 이런 것 같아”... 근데 처음에는 이제 엄마가 그걸 진지하게 안 받아들였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엄마도 그랬어. 예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정서적 공동체에서 벗어난 구성원은 유별난 사람 혹은 판을 깨는 사람으로 표상되며 정서적 소외를 야기한다. 주변에서 “너는 왜 편안한 집안 분위기에 찬물을 뿌리냐?”, “네가 그 얘기를 꺼내서 또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 됐다.”와 같은 얘기는 커밍아웃한 성소수자들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종종 듣는 얘기이고, 성소수자 자녀들은 이럴 때마다 자신이 유별난 사람, 판을 깨는 사람으로 인지하며 자신을 가족의 유대감과 행복을 해치는 사람으로 인식하기도 한다.¹⁶⁾

“이미 그런 경험들(성적지향이 무시된 경험)이 쌓였을 때 저한테는 되게 높은 마음의 장벽이 생겼고. 그런 얘기를 꺼내면 동생이 약간 그런 뉘앙스로 답해요. 그러니까 “유별나게 군다.” 네~ “유별나게 군다”로 반응하고. 되게 정상성에 대한 강박이 강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말을 하면 이렇게 참고, 참고, 참고하다가 이제 저도 화를 내고 동생도 화를 내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까, 대화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데. …중략… 근데 그 이후에도 한번 저한테 비슷한 대화 패턴, 이제 “너는 왜 이렇게 유별하게 구냐? 왜 너만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왜 모르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크게 싸우고 그 이후로는 연락 안 하고 있어요.”

D씨. 30대. 트랜스젠더 남성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원가족과 불화가 시작된 게 이제 제가 “트랜지션을 하겠다”고 뭔가 제 정체성을 말하고, 이제 트랜지션에 대한 걸 그때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되게 안 좋아하셨어요. 특히 저희 어머니가 안 좋아하셨고. 이제 저희 누나는 “이제 엄마 괴롭히지 마라~” 그런 소리를 해서 “엄마 괴롭히지 마라~” 이런 반응이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되게 갈등이 많기는 했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집을 나왔던 것도 있어요. …중략… 사실 이렇게 직접적인 폭력은 없었지만, 저는 그런데 되게 저한테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폭력적인 환경이었다고 느꼈고.”

A씨. 30대. 트랜스젠더 남성

D씨는 아웃팅 이후 동생으로부터 “너만 유별나게 구냐?”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했고, A씨는 커밍아웃 후 누나로부터 “엄마 괴롭히지 마라”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D씨와 A씨 둘 다 자신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이 공개된 후 유별나게 굴며 가족 공동체의 유대감을 깨고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구성원들에게 인식되었던 것이다.

결국 정서적 공동체로 원가족이 결속이 될 때 여기서 벗어난 구성원들은 유별난, 판을 깨는 사람을 인지되며 이들에게 정서적 소외¹⁷⁾를 야기한다.

16) ibid.

17) ibid.

그리고 이 정서적 소외는 A씨의 언급처럼 원가족을 “정서적으로 굉장히 폭력적인 환경”으로 인식하게 하고, D씨의 언급처럼 “되게 높은 마음의 장벽”이 놓인 곳으로 경험하게 한다.

원가족의 정서적 공동체는 성소수자 구성원들의 자리를 가족으로부터 지운다. “거기에 이제 사실 제가 편하게 있을 자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 보면은.”이라는 A씨의 언급은 자신의 자리를 갖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벗어난 느낌, 즉 탈구(dislocation)의 감각과 감정으로 원가족을 경험하는 트랜스젠더의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다.

2.3. 원가족으로부터 독립과 주거 불안

■ 원가족과 불화 그리고 준비 없는 독립과 주거 불안

상술했듯이 일반적으로 원가족 집은 이성애 규범과 성별 이분법이 수행되고 기대되는 장소로서 이 안에서 성소수자들은 자신이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숨기고 단속해야 하는 불안을 경험한다. 이에 따라 많은 수의 성소수자들은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못하고 독립을 하거나 심할 경우 청소년 시기에 탈가정을 하기도 한다.

특히 트랜스젠더는 트랜지션으로 인한 외형과 목소리의 변화로 다른 성소수자보다 이른 나이에 원가족으로부터 독립을 한다. 본 단체가 2021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트랜스젠더의 독립 나이는 22.4세로 여타 시스젠더 여성(23세)과 남성(24.1세)에 비해 이른 나이에 독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⁸⁾ 상황이 이렇다보니 트랜스젠더의 경우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독립을 해 주거 위기를 경험하기도 한다.

구술자 A씨의 경우 트랜지션 문제로 원가족 부모와 갈등을 빚으며 충분한 준비 없이 급하게 독립하며 주거 불안을 경험한 사례다. A씨는 가족에게 커밍아웃을 했지만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감시하고 단속하는 원가족 집의 답답함에 갈등을 빚고 있었다. 모친에게 독립을 얘기했지만 원가족 집을 나서면 호르몬 주사를 맞을지 모른다는 이유로 독립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종종 직장 사무실에서 잠을 자며 생활을 해야 했다. 다행히 사무실이 주거 공간을 개조해서 쓰는 곳이고, 동시에 인권운동을 하는 단체였기에 큰 불편 없이 잠을 잘 수 있었지만 그래도 집이 아닌 장소에 숙박을 하는 불편은 감내해야 했다.

“제가 이제 17년도부터 ○○○ 활동을 했는데, 이제 ○○○ 사무실에서 거의 살았어요. 이제 가정집을 사무실로 썼거든요. 이렇게 책상 놓고 해서 사무실로 썼는데. 그래서 이제 침낭 깔면 잘 수 있었어요. 그냥 가정집 바닥이니까~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핑계는 “이제 회사에 일이 너무 많다.” 그랬는데 이제 사무실 공간은 어쨌든 저한테 편

18) 성소수자 주거권 네트워크. 2021. 『성소수자, 주거권을 말하다』. 미발행 보고서.

한 공간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사무실에 그냥 침낭 깔고 자고, 그리고 아침에는 회사로 출근하고. 그러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바로 독립을 할 수 없었던 거도, 어머니가 약간 그런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또 막 호르몬을 하니 뭐니 이런 헛소리를 하시는데 혼자 나가 살면 진짜 그럴까 봐~ 저는 이렇게 회사 핑계되면서, “내가 출퇴근하기 힘들니까 독립을 하고 싶다”라고 해도 허락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이제 사무실에서 외박도 하고 그러면서 한 1년 간 그렇게 버텼던 것 같아요. 1년간을 버텨다가...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뭔가 독립이라는 개념을, ‘내가 보증금을 모아서 좀 나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지내니까 그냥 제가 못 있겠더라고요, 원가족의 집에는. 네, 그래가지고. ‘그냥 고시원이라도 나가 살자’ 해서, 그 짐 챙겨 나올 때도 되게 야반도주 하듯이... 18년도, 19년도 그쯤 아마 고시원으로 들어갔을 것 같은데. 짐 챙겨 나올 때도 되게 무슨 야반도주하듯이... 엄마 없을 때, 이제 아파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엄마가 산책 가고 하면 들어가서 짐 조금 챙겨서 나오고...”

A씨. 30대. 트랜스젠더 남성.

A씨는 직장 사무실에서 자주 외박을 하며 편안하면서 동시에 불편한 생활을 하다가 독립을 허락하지 않는 어머니를 피해 자신의 짐을 조금씩 빼내며 도주하듯이 몰래 고시원으로 이주를 한다. 그리고 고시원 생활을 하며 호르몬 요법을 시작하기로 결심한다. 트랜지션을 염두에 뒀기에 고시원 역시 남녀로 구별된 장소가 아닌 혼용 장소에, 화장실이 방안에 있는 곳을 찾아 입소했다.

그러나 고시원이라는 다중이용시설은 성별에 관한 A씨의 모든 행동을 불편하게 했다. 무엇보다 의료적 트랜지션 이후 변하는 외형과 목소리에 고시원 원장이나 총무가 반응할 의심스런 시선이 걱정이 되었다. 그리고 가슴 압박바인더와 남성 속옷 등 지정성별과 반대되는 빨래들도 주변 거주자들에게 눈치가 보여 외부 공용공간이 방 안에서 널어야 했다. 그 결과 곰팡이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며 곤란을 겪기도 하였다. 아직 호르몬 요법을 하기 전인 상황이었기에 현재 자신이 인지하는 성별정체성을 표현하고 수행하는 것은 유독 유별난 것처럼 느껴졌고, 이러한 시선의 걱정과 부

담은 고시원 생활의 안정과 정주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았다.

주변과 관계에서 오는 아웃팅 위험과 주거 불안은 고시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더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용공간에서 거주자들을 마주칠 수밖에 없는 고시원의 상황은 주변의 시선에 자주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며 자신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게 한다. 이는 트랜스젠더에게 고시원의 삶을 긴장과 불안, 그리고 위험의 장소로 경험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어쨌거나 트랜지션 시작하고 뭔가 좀 외형이 변하거나 목소리가 변하거나 할 때, 이제 또 그때 이렇게 고시원 이렇게 주인이라든가 이렇게 눈치가 안 보일까 이런 것도 걱정이 됐고. …중략… 저는 사실 고시원에서도 제일 불편했던 게, 지금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 안 쓸 텐데... 뭔가 이제~ 특히 이제 속옷 같은 것도 이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트랜지션을 안 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가슴 압박 바인더 같은 것도 있고 한데... 이제 이거를 방에서 말리니까 곰팡이 생기고 이러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은 사람들 그냥 별로 그게 뭐지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이거 뭐지?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하거나 그러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 고시원 생활을 할 때는 자신의 성별정체성과 트랜지션을 허락하지 않는 원가족에서 벗어난 해방감과 자유를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충분한 독립 준비 없이 시작한 고시원이라는 다중이용시설의 생활은 A씨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신의 성별정체성 수행을 단속하고 통제하게 했다. 여기에 좁은 고시원 생활이 더해지며 A씨는 매우 불안하고 불안정한 주거 환경을 경험했다.

또한 이 시기 A씨는 생계를 위해 콜센터에서 일하며 지정성별 여성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인권운동 단체에서 일을 했지만 반상근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입이 많지 않았고, 이에 따라 쉽게 구직이 될 수 있는 콜센터에서 일을 하며 소위 투잡을 뛰었다. 문제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인권운동 단체 사무실을 가지 못하며 발생했다.

좁은 콜센터 사무실에서 집단적으로 일하는 A씨는 코로나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 혹여 자신이 인권운동 단체에 감염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

각에 사무실을 가지 않았다. A씨는 콜센터와 좁은 고시원 방을 오가는 생활만 해야 했고,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계속 감추고 단속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일종의 틈이었던 인권운동 단체 사무실을 가지 못하게 되면서 A씨는 갑갑한 생활을 이어가야만 했고, 이는 건강 악화를 초래하기도 했다.

“(고시원 생활은) 좁아서 불편한 게 일단 제일 컸던 것 같고요. 제가 그때쯤에 회사 생활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는지, 그리고 또 건강이 되게 급격하게 안 좋아졌는데, 그때 그 미주신경성 실신 증상이 있었어요. 이렇게 막 갑자기 쓰러지거나. 근데 고시원에서도 몇 번 쓰러졌는데 근데 방에 혼자 있을 때 쓰러지거나 이럴 때 뭔가 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충분한 준비 없이 독립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시원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다. 그러나 A씨에게 고시원은 성별정체성을 단속하고 숨겨야 하는 좁은 방, 회사의 긴장 상태를 풀 수 없는 다중이용시설의 갑갑한 방으로 일종의 감옥과 같았다. 실신으로 위험에 처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했지만 좁은 방에 위축된 신체는 고립감을 더했다. “고시원에서 제 미래를 상상할 수 없던 게 좀 제일 컸던(힘들었던) 것 같아요.”라고 말할 정도로 A씨에 고시원 생활은 자신을 감추고 위장하며, 웅크리고 지내야 하는 숨 막히는 장소로 경험되었다.

다행히 A씨는 성소수자 대안 가족을 꿈꾸는 셰어 하우스를 구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방 하나를 임대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셰어 하우스 역시 룸메이트의 전세 계약에 의존해서 운영되고 있기에 만약 이 계약이 연장되지 않거나 룸메이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A씨는 다시 불안한 고시원 생활을 해야 한다.

트랜스젠더는 아니지만 인터섹스인 H씨도 트랜지션의 문제로 원가족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하고 불안한 독립생활을 해야 했다. H씨는 출생 후 남성으로 호명되며 원가족에서 남성 역할을 수행했다. 맏이였고, 공부도 잘 했던 H씨는 진로 또한 원가족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정도로 모범적이었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러나 H씨는 자신의 신체와 목소리가 여성의 특성을 띠는 것에 성별 불

일치를 경험하며 장남 역할에 부담과 거부감을 느끼기도 했다. 성별정체성의 혼란과 고민을 거듭하던 중 병원 검진을 통해 자신이 인터섹스인 것을 알게 되었다. H씨는 그 순간 자신의 성별 불일치에 따른 불쾌감과 혼란 등이 일순간 정리되고 이제 자신의 성별을 여성으로 확정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감에 기뻐했다.

“저는 좋았어요. 저는 이제 모든 게 다 이해가 되잖아요. 이제 왜 내가 가슴이 나왔고, 왜 남성으로서 2차 성징이 안 나타났고, 왜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을 갖고 있고,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니까~ 저는 사실은 되게 납득이 된 상태로 ‘부모님도 이런 말씀드리면은 좀 이해하시겠지’하고 부모님 찾아갔는데, 엄마 아빠가 엄청 놀라셔가지고 의사 선생님 같이 뵈고, 정말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담배를 베어 물고, 담배를 피시고.”

하지만 원가족 부모는 H씨가 인터섹스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집안의 장남으로서 똑똑하고, 충실했던 남성을 원했고, H씨가 이를 거부하고 여성으로 성별 확정(정정)을 시도하자 그녀를 방에 가두고 외출을 금지했다. 남성의 역할을 수행하면 감금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H씨는 더 이상 남성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기에 6개월 동안 감금은 이어졌다. 결국 H씨의 자해와 자살 시도로 감금은 해제되었지만 원가족 아버지는 여성으로 정체화한 H씨를 인정하지 못하고 집에서 쫓아냈다.

“그 당시에 아빠, 엄마가 인정을 못하셔가지고, 저를 이제 바깥으로 못 나가게 막으셨었어요. 이제 감금하시고. 그게 한 6개월 정도 가까이 되다가, 이제 제가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그~~ 남자로서 삶을 강요받아... 전 이미 다 알았잖아요. 이제. 근데 “너는 나가려고 그러면은 이제는 머리도 자르고, 남자답게 행동하고, 그렇게 옷을 입고, 그렇게 생활을 해라~”라고 하니까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그럴 거면 나가지 말라”라고 해가지고 가두셨던 게 한 6개월 됐고. 그 상황에서 자해도 하고 자살 시도도 하다가 응급실에 실려가요.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의사선생님이 부르셔가지고 “애를 인정하든 하지 못하든 일단 독립시키라”고 해서 아빠가 정말 단 한

폰도 안 주워주시고 그냥 무일푼을 내쫓으신 거거든요.”

아무런 준비 없이 정말 무일푼으로 쫓겨난 H씨는 어쩔 수 없이 당시 대학원 생활을 하던 학교 열람실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고, 노숙에 가까운 생활을 해야 했다. 잠은 24시간 운영하는 열람실 책상에서 엎어져 자고, 학교 샤워실에 샤워와 빨래를 하고, 학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위태로운 생활을 3개월여 지속해야 했다. 이 위태로운 생활에서도 그나마 여성으로 정체화하고 여성을 수행하는 것에 오는 안정감과 자유를 느끼기도 했다.

“제일 처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24시간 열람실에서 살았고요. 24시간 이니까~ 네. 거기다 짐 두고 샤워만 아침에 하고 그랬죠. …중략… 쫓겨났죠. 거의. 엄마, 아빠가 인정을 안 해주셔가지고. 이게 수용을 하셨으면 상관이 없는데, 수용을 안 해주셔가지고. 엄마 아빠가 충격을 많이 받으셨거든요. …중략… 그냥 엎어져서 자는 거죠. 뭐~ 하하하(웃음) [질문자: 그렇게 그냥 3개월 동안?] 네. [질문자: 씻고 이런 거는 학교 샤워실에서?] 아~ 네네네. 옷도 보통 두 개 정도 가지고 빨아 입으면서 입고 그랬죠.”

H씨는 힘겨운 열람실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을 해야 했지만 지정성별과 현재 표현하는 성별의 불일치로 취직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이직이 많아 신상 정보를 세세히 따지지 않는 콜센터에 지정성별 여성으로 취업을 한다. 이렇게 콜센터에서 받는 최저 임금을 모아 H씨는 열람실 생활에서 벗어나 고시원으로 이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처음 고시원에 자리를 잡는 과정도 평탄치 않았다. 왜냐하면 여성으로 정체화한 H씨는 여성 전용 고시원에 이주하기를 희망했지만 지정성별 남성의 이름이었기에 고시원에서 입소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되게 솔직하게 제 이름을 밝히고 (고시원) 들어가려다가 당연히 다 거부당했죠. 이제 그러다가 사실 고시원 처음 들어갈 때는 이름을 속이고 들어갔어요. 바꿀 만한 이름으로. 지금 이름으로 그냥...”

이름을 속이고 입소한 처음 고시원은 창문이 없는 캄캄한 방이었다. 보통의 경우 창문이 없어 캄캄하고 좁은 고시원 방은 매우 열악한 주거 환경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열람실 생활을 했던 H씨에게 이 공간은 상대적으로 편한 장소였다. 다리를 뻗고 잘 수 있다는 것 자체가 H씨에게는 큰 편안함을 줬기 때문이다. 이후 H씨는 콜센터를 그만두고 여러 과외를 하며 좀 더 양호한 곳으로 거처를 이전한다. 예컨대 창문 없는 고시원 방에서 창문 있는 고시원 방, 그리고 화장실이 안에 있는 방 순으로 약 3, 4년 동안 남들은 불편할지 몰라도 자신은 크게 불편하지 않은 고시원 생활을 한다.

“침대에서 잘 수 있다는 게 행복했죠. 당연히. 짜구려서 안 잘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중략… 저는 일반인… 그러니까 저는 24시간 열람실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고시원에서 사는데 큰 불편함이나 불만은 없었는데, 만약에 저렇게 저처럼 되게 밑바닥부터 하나씩 올라온 사람이 아니라면은 많이 불편할 것 같기는 해요. 너무 좁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중략… 아무리 그래도 내가 24시간 열람실에서 잘 씻지도 못하고, 엎어져서 자던 때보다 나으니까. 어느 때라고 하더라도..”

현재 H씨는 과외와 학업을 병행하며 고시원 생활을 벗어나 학교 근처에 원룸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H씨의 경우 학력이 좋아 과외를 여러 개 병행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가질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빨리 고시원 생활을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학력과 경제 자본이 적은 트랜스젠더의 경우 고시원 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경험하는 주거 불안에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2021년 본 단체가 성소수자의 주거 불안을 조사하며 만난 G씨(트랜스젠더 여성, 30대)의 경우 창문이 없는 고시원 방 생활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었다. 적절한 주거 공간을 갖기 위해 취직을 해야 했지만, 성별 불일치로 인해 취직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후술하겠지만 트랜스젠더의 성별 불일치는 직업 영역에 많은 불이익으로 작용해 주거 안정을 해친다.

결론적으로 트랜스젠더는 성별정체성 문제로 원가족과 불화를 겪으며 이른 나이에 독립하는 경향이 많고, 이는 이들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하게 되는 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예컨대 영국의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대

에서 20대 초반의 트랜스젠더는 동년배 시스젠더에 비해 노숙을 경험하는 경향이 높다고 한다. 성별정체성과 트랜지션 문제로 원가족으로부터 언어 학대와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며 이른 나이에 준비 없이 탈가정하는 트랜스젠더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¹⁹⁾

■ 이사와 집 계약, 그리고 주거 불안

많은 트랜스젠더가 트랜지션으로 인해 충분한 준비 없이 독립하는 사례가 많고 이에 따라 고시원 혹은 친구 집 등에서 생활하며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하곤 한다. 원가족의 지원 혹은 힘겹게 돈을 모아 더 안정적인 집을 구해 이사를 하기도 하지만 트랜스젠더에게 이 이사 자체가 마냥 좋은 일이 아니다. 이사할 집을 위한 계약 과정은 법적 성별(지정 성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이는 트랜지션을 진행한 트랜스젠더에게는 아웃팅의 위험으로 인지되고 경험되기 때문이다.

본 단체가 2021년 주거 계약 시 경험했던 불이익을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많은 수의 트랜스젠더가 주거 계약 시 아웃팅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개방형으로 질문한 조사에서 “집 계약 시 계약서에 적어야 하는 주민등록번호 탓에 아웃팅이 됐다”는 서술들이 많았으며, “아웃팅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는 경험을 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성별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며 넘어갔다”는 응답 등 트랜스젠더에게 집 계약은 성별 불일치를 공개해야 하는 매우 위험하고 곤란한 일이다.²⁰⁾

본 조사에 참여한 구술자 J씨도 집 계약 시 위와 같은 불안을 겪어야 했다. 현재 J씨는 법적으로 성별 확정(정정)을 한 상태라 집 계약 시 불편은 없지만 성별 확정(정정) 이전에 집 계약에 대해 “엄청 조마조마했”고 “고민을 엄청 많이 했다”고 구술한다.

“그 전에 정정하기 전에 집 구했을 때는 엄~청 조마조마했어요, ‘정말 진짜 이거를 어떻게, 이걸 여자 친구 명의로 해야 되나? 내 걸로 해야 되나? 내 거 민증 봐야 되는데, 그걸 내야 되니까 여자 친구 명의로 할까?’ 고민을 엄청 하다가~ 제 친구가 예전에 친구 명의로 했

19) Faye, S. 2022. 『트랜스젠더 이슈: 정의를 위한 투쟁』. 강동혁 역. 돌베개. 77-78.

20) 성소수자 주거권 네트워크. 2021. 『성소수자, 주거권을 말한다.』. 50.

다가 자기 걸(주민등록증) 못 내니까 했다가 돈 떼어 먹은 적이 있거든요. 보증금을, 그 친구가. 같이 살던 애 명의로 그냥 했던 거예요. 자기 거 못 내니까~ 자기 돈으로. 그런데 그 친구가 그걸 먹었어요. 먹고 날랐어요. 어차피 자기 돈이니까. 어쨌든 법적으로는 자기 돈이잖아요. 자기 보증금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월세여서 얼마 안 되긴 했어요. 그때는 엄청 큰 돈이죠. 어릴 때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로 고민을 엄청하다 ‘아~ 몰라 거기서 뭐라고 물어보면 또 잘못 올라갔다고 하지 뭐~’ …중략… 이래서 민증을 냈는데 다행히도 부동산에서 복사만 하고 그냥 마시더라고요. 다행히 그렇게 넘어가서, 그때 당시에는 엄청 불편했죠. 그래서 집 구하는 것도 무섭죠.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도 “신분증 내”라고 먼저 하니까~ 그런데 이제 (성별이) 변경됐으니까 불편한 게 없었죠.”

J씨. 30대. 트랜스젠더 남성.

J씨는 당시 파트너와 함께 살 집을 구하기 위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성별 불일치 문제로 파트너 명의로 집을 계약 하는 것을 고민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인이 파트너 명의로 계약을 했다가 보증금을 잃는 것을 보았기에 선불리 이를 실행할 수도 없었다. 결국 위험을 감수하며 자신의 법적 성별로 계약을 진행했지만 다행스럽게 우려했던 아웃팅은 발생하지 않았다. 아웃팅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J씨가 집 계약 시 겪었던 불안과 고민은 트랜스젠더가 겪어야 하는 주거와 관련된 곤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집을 둘러싼 사회관계와 주거 불안

본 단체가 2021년에 펴낸 『성소수자, 주거권을 말하다』를 살펴보면 많은 수의 성소수자들이 주변 지인이나 가족이 자신의 집을 방문할 때 스트레스와 불안한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소수자들은 원가족 집에서 독립해 자신만의 공간을 처음 얻었을 때 원가족에서 숨기고 감춰왔던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그 공간에 펼쳐 놓으며 안전한 집을 구축한다. 뒷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무지개 깃발, 퀴어 관련 서적, 커플 사진 등을 전시하며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집에 심어 넣는다. 이러한 집 꾸미기를 통해 주변

에서 지워져왔던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확장하고 재생산한다. 그러나 이러한 집 꾸미기는 외부인의 방문에 의해 다시 감춰지고 부정된다. 많은 성소수자들이 지인이나 가족이 집에 방문했을 때, 아웃팅을 우려해 커플 사진과 쿼어 관련 장식품 등을 감추며,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공간(집)을 이성애 규범과 성별 이분법에 맞춰 재배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섹슈얼리티와 전시품의 숨김은 이들에게 스트레스, 기분 나쁨, 괴로움 등 소외의 감정을 낳으며 주거 불안을 야기한다.²¹⁾

따라서 성소수자들, 특히 파트너와 동거하는 커플의 경우 가급적 지인이나 외부인들을 자신에 초대하거나 방문 하는 것을 꺼린다. 집의 방문은 곧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이 아웃팅 될 수 있는 위험을 만들기 때문이다. C씨(20대, 트랜스젠더 남성) 역시 이러한 위험을 경험했다. C씨는 취직을 해 원가족 집에서 독립을 했고, 독립 후 호르몬 치료를 하며 의료적 트랜지션을 진행하고 있다. C씨는 원가족로부터 독립한 후 자신만의 방을 가지면서 그동안 허락되지 않았던 남성의 속옷과 면도기 등을 자연스럽게 집에 늘어놓기도 하고, 호르몬제나 주사기 역시 감추지 않고 눈에 띄는 곳에 놓으며 트랜지션과 자신의 현재 성별정체성을 집 곳곳에 펼쳐놓았다. 이처럼 C씨에 집은 흑인 페미니스트들이 말했던 것처럼 직장 and 사회에서 숨기고 부정해야 하는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펼치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장할 수 있는 일종의 틈과 경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틈은 외부인의 방문으로 쉽게 메워질 수밖에 없으며 많은 경우 아웃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C씨는 친밀감을 이유로 자신의 집을 방문하려는 직장 동료들과 거리를 두며 지인들의 방문을 허락하지 않는다. 호르몬 요법으로 인해 변화되는 목소리와 외형 때문에 가뜩이나 사회적 관계를 잘 맺지 않는 C씨에게 동료들의 집 방문 거절은 직장 생활 내 고립을 더욱 심화시킨다. 외부인과 관계에서 나타나는 주거 불안이 다시 사회관계의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볼 수 있다.

“지금은 좀 괜찮아졌는데, ○○○ 다닐 때 같이 다니던 동료들이 제가 자취를 한다고 하면 계속 “놀러 가고 싶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서가지고, 그때 당시에 호르몬이나 그런 거를 제가 자가 주사로

21) 성소수자 주거권 네트워크. 2021. 『성소수자, 주거권을 말하다』. 미발행 보고서.

있었어 가지고, 호르몬제나 그런 게 좀 눈에 띄면 이상하게 볼까봐 불안하기도 했어요. 미용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집 근처에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온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속옷이라던가 호르몬제나 주사기 이런 것들 좀 숨겨야 되고, 면도기라던가 그런 것들 좀 이상하게 볼까 봐 숨겨야 되고.”

I씨(20대, 젠더퀴어)는 외부인 방문이 신경 쓰여 아예 집 꾸미기를 하지 않는 사례다. I씨는 집에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표현하는 깃발과 다양한 장식 등으로 집을 꾸미고 싶지만 외부인들의 방문이 신경 쓰여 집 꾸미기를 주저하고 있다. 현재 사는 집에 문제가 생기면 종종 집주인과 외부 기술자들이 방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I씨는 선뜻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전시하지 못하고 있다.

“프라이드 플래그를 걸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 사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직 사지 못했어요. 계속 ‘언젠가 사겠지~’ 그거랑 또 해보고 싶은 거는 또 친구 집에 갔더니, 친구 집에 엄청 크게 성중립 화장실이라고 붙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해보고 싶고. 근데 못하겠어요. 뭔가 누가 와야 될 상황이 있으니까, 인터넷 기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저번에는 에어컨 기사님도 왔다 갔고. 집주인이 올 수도 있고. 집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물도 조금 새고.”

I씨. 20대. 젠더퀴어

집은 주변과 관계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성소수자는 자신의 집에서조차 끊임없이 자신을 검열하고 숨겨야 하는 불편과 소외를 경험하며 주거 불안을 겪는다.

■ 트랜지션 비용과 주거 불안

트랜스젠더가 겪는 성별 불일치는 당사자에게 매우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 소위 젠더 디스포리아(gender dysphoria)²²⁾라 불리는 이 고통을 완화

22) 성별 불쾌감으로 번역할 수 있으며 개인의 성적 특성(생식기), 이차적 성적 특성(가슴, 수염, 월경, 얼굴 형태, 목소리) 등 신체적 특성을 기준으로 사회가 남성 혹은 여성으로

시키기 위해서는 불일치한 성별을 일치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의료적 개입이 요구된다. 그런데 이때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가령 평균적으로 고환·정소 제거 수술은 300만원, 난소·자궁 제거 수술은 400만원이 든다. 가슴 수술은 400~600만원, 성기재건 수술은 2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더불어 2-4주 간격으로 평생 맞아야 하는 호르몬 치료도 수술보다 적은 비용이지만 한 번에 수 만원씩 든다.²³⁾

이에 따라 몇몇 트랜스젠더의 경우 의료적 트랜지션 비용으로 경제적 곤란이 가중되어 주거 불안이 야기되곤 한다. 일례로 2021년 본 단체에서 조사한 ㄱ씨(30대, 트랜스젠더 여성)의 경우 호르몬 치료비용으로 인해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지내야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녀는 매달 5만원 정도의 비용을 호르몬 치료를 위해 지출하고 있었지만 성별 불일치로 인해 구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또한 부담이었다. 무엇보다 창문이 없는 어두운 고시원 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ㄱ씨에게 만약 이 돈이 주거비로 지출된다면 그녀의 말대로 “퀄리티”가 더 높은, 창문 있는 방으로 옮길 수 있는 돈이었다.

“그거(호르몬 주사)를 2주에 한 번씩 맞으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먹을 약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것도 먹어주고 하면, 한 달로 치면 그래도 10만 원은 안 나오고요... 5만 원? 한 달에 지금 5만 원 정도... 저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더 먹는 사람들은 더 많이 나오고. (중략) 그것(호르몬 주사 비용)도 어느 정도 쌓이는 돈이고... 그런 게 또 돈이 없을 때 또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느낌도 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돈이 또 만만치 않죠. 사실은 지금 35만 원에서 살지만 여기서 5만 원 늘리면 퀄리티는 더 올라가는데...”

ㄱ씨와 유사한 맥락에서 A씨도 트랜지션 비용으로 주거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원가족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시원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세어 하우스를 구해

지정하고 호명하는 데서 생기는 강렬한 불안감, 고통, 불행을 뜻하는 임상적 용어다. 예전에는 젠더 정체성 장애, 그전에는 성전환증이라고 불렀다. (출처: Faye, S. 2022. 『트랜스젠더 이슈: 정의를 위한 투쟁』. 강동혁 역. 돌베개. 109.)

23) 한겨레21. 2017.12.11. “트랜스젠더는 정부의 케어를 받을 수 있을까?”. (https://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4592.html)

불편한 고시원 생활을 접을 수 있었지만, 전세로 운영되는 이 집이 계약이 만료가 되거나 세어 하우스를 운영하는 룸메이트가 다른 곳으로 이사라도 하게 된다면 A씨는 다시 고시원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월가족으로부터 독립 후 투잡을 뛰기까지 하며 월세 혹은 전세 집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모았지만, 이 돈을 이 보증금에 쓰기보다는 가슴절제수술을 하는데 사용했다. 당장의 주거 안정보다는 성별 불일치에서 오는 디스포리아를 줄이게는 무엇보다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는 A씨에게 언제든 다시 고시원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주거 불안을 남겨놓았다.

“지금 사실 그러려고(월세를 얻으려고) 그~ 돈을 모은 거를 수술비로 써가지고. 그래서 사실 고민을 했어요. 저도 이런 불안한 감각이 항상 있으니까~ 좀 이렇게 ‘500만 원, 천만 원이라도 모아서 원룸이라도 이사를, 내가 얻어서 갈까~ 월세 보증금이라고 내가 쥐고 있을까, 아니면 수술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제 룸메(룸메이트)한테 이제 읍소를 했죠. “어디에 가도 날 좀 데려가 달라~ 향후 1년 동안만. 내가 내년에는 천만 원 모아서 쥐고 있겠다. …중략… 그게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언제 다시 고시원으로 들어갈지 모른다~’ 지금도 사실 그 생각이 저한테 약간 있어요. 룸메가 지금 이렇게 집 전세 계약이 연장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좀 투룸 이하인 곳으로 이사 가서 내가 나가야 되면, 나는, 저는 이제 사실 보증금 모은 거를 수술비로 썼거든요. 하하하(웃음) 그래서 전세 대출 받으려면 어쨌든 간에 천만 원, 10%는 있어야 돼야 하잖아요. 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중략… 지금은 여기가... 지금도 항상 그런 감각이 있기는 해요. ‘내가 여기를 언제 떠나게 될지 모르겠다.’”

A씨. 30대. 트랜스젠더 남성.

E씨(40대. 트랜스젠더 남성)도 A씨와 비슷한 맥락을 공유하지만 반대로 E씨는 수술비를 절약해 주거와 생활 안정을 이룬 사례다. E씨는 직장생활을 하며 성별 확정(정정)을 위한 수술비를 모았다. E씨가 성별 확정(정정)을 준비할 때(2013년)만 하더라도 트랜스젠더 남성의 경우 성기재건 수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당시 대략 3천만 원 정도였기에, 성별 확정(정정)을 준비하는 트랜스젠더 남성은 많은 비용과 수술의

위험을 부담해야만 했다.

이 상황에서 E씨는 만약 성기재건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이 이뤄진다면, 이 비용을 주거비로 전환할 수 있고, 주거 안정 기회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를 실천에 옮겼다. 수많은 노력 끝에 E씨는 성기재건 수술 없이 성별 확정(정정)이 통과가 되는 사례를 만들었고, 수술 비용을 전셋집 마련에 그대로 투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월마다 지출하는 임대료를 절약할 수 있었다.

“제가 2013년에 성별 정정을 이제 기획... 우리가 기획 신청으로 해가지고, 외부 성기 성형 없이 정정하는 그거를 이제 시도를 해서 이제 성공을 해서, 그 후에 이제 퍼진 케이스?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시도를 하고, 기획을 하고 시도를 하고 통과를 했었는데, 그거를 하게 된 사실 계기는, 사실 계기는 직접적인 계기는 사실 전세금이긴 해요,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그때 그 전에, 이제 그 이전에 아까 말대로 제가 이제 2008년부터 이제 쪽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돈을) 모으면서 (집을) 쪽쪽 늘려나갔었는데~ 근데 이제 그 이전까지는 제가 월세였었고, 월세를 쪽 지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2010년 정도부터 해가지고 한 4년 정도, 대충 사년 정도 직장을 다녔었거든요. ○○○○○○ 다녔었는데, 그때 이제 좀 그때 거기가 되게 넉넉하게 (월급을) 줘서, 그래서 그때 많이 (월급이) 들어오긴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들어가면서 생각을 했었던게, 제가 박사는 들어가 있는 상태였었고, 그래서 일단 박사를 나올 때는, 나오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사회생활 말 그대로 취직? 이런 걸 생각해야 될 텐데, 그걸 나올 때에는 최소한 정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사회생활 시작하기 전에는 일단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계획이 지금 이제, ‘여기 직장 다니면서 수술비를 모아가지고, 그 비용으로 수술을 딱 하고 정정을 한 다음에 마음 편히 논문을 쓰고 딱 졸업하면 되겠다.’ 이게 제 계획이었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3년을 이렇게 모으니까 이제 한 3천만 원이 딱 되니까, 태국 (수술하러) 간다면 대충 떨어지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일단은 최소 비용을 다 마련을 했다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3천만 원 정도 이제 모였고’라고 생각했는

데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월세를 내고 있었으니까. ‘이거를 전 세금으로 딱 돌리면은 그러면은 월세 걱정 없이 마음 편히 논문을 쓰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기획 신청)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통과가 되면은 통과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통과가 만약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거의 그냥 월세집이 전셋집이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시작을 한 게 사실 직접적인 계기는 그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뒤에 1천만 원 더 모아가지고, 이제 그때 4천만 원 이제 모아가지고, 전세, 전셋집 이렇게 딱 하고. 그리고 이제 논문 딱 쓰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생 경로가 확실히 바뀌었지. 그렇지 않았으면 그때...”

E씨는 전셋집으로 이주 후 고정 비용으로 나가는 임대료가 나가지 않아 “진짜 마음이 편하다”라는 안정감을 표현했다. “직장을 그만둬도 당장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만큼 수술비 절감은 E씨에게 주거 안정의 결과로 작용했다.

■ 어디에도 없는 집

성별 이분법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트랜스젠더는 항상 제자리를 벗어난 느낌 혹은 자신의 자리가 없는 탈구의 느낌을 경험한다. 자신이 자라왔던 원가족 집에서도 항상 엉뚱한 자리에 잘못 놓인 것 같은 불안을 경험하고 원가족을 벗어나 사회생활을 할 때도, 보통의 일상을 경험할 때도 이 사회에 어울리지 못하고 불화하며 불쑥 튀어나온 감각을 경험한다. 영어 단어 ‘feel at home’이 의미하는 것처럼 편안한 느낌이 집에 있는 느낌이라면 결국 트랜스젠더는 이 사회에서 자신의 집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트랜스젠더가 제자리를 벗어난 신체, 즉 비체(bject)²⁴)가 아닌

24) 버틀러에 따르면 비체는 성별 이분법으로 조직되고 구성되는 세계에서 인식되지 않는, 물질화되지 못하는 존재다. 우리가 물질화되고 인식되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성별 이분법의 규범을 수행하고 모방하며 하나의 성별로 정체화해야 한다. 그러나 성별 이분법에서 벗어나는 트랜스젠더는 우리의 인식틀을 구성하는 성별 이분법에 포착되지 않는다. 따라서 트랜스젠더는 사회에서 물질화되지 못하고 오로지 흔적으로만 그리고 이분법적

이 사회에서 소속감과 편안함을 갖는 물질화된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들을 성원으로 인정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있을 때야만 트랜스젠더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확장하고 안전하게 재생산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흑인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집(틈과 경계)이 있을 때, 비체가 아닌 주체로서 트랜스젠더의 정체성을 확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집은 꼭 거주지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 힐 콜린스(Hill Collins)가 흑인에게 백인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면 어디든 집이다²⁵⁾라고 주장한 것처럼 트랜스젠더도 자신에게 안정감과 소속감을 주고, 지지와 지원을 해주는 곳이면 어디든 집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성별 이분법 사회에서 경계와 틈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집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두 가지 집의 경험을 살피려고 한다. 하나는 의미 그대로 트랜스젠더가 안전한 집을 구성하고 경험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직장생활과 주변 관계에서 집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성별 주체의 한계를 설정하는 구성적 외부로만 존재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길 바란다. Butler, J. 2008. 『젠더 트러블』. 조현준 역. 문학동네.

25) Hill Collins, P. 1990. *Black Feminist Thought: Knowledge, Consciousness and the Politics of Empowerment*. London: Harper Collins.

2.4. 틈과 경계 만들기: 관계, 인정, 안정

■ 지지와 인정, 정체성 표현의 장소 ‘집’

트랜스젠더를 다룬 많은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가족 혹은 주변의 지지와 인정이 트랜스젠더의 디스포리아를 극복하고 자신이 표현하는 성별정체성을 안전하게 수행하는 기제라는 것이다. 주변에서 자신의 성별정체성 수행을 인정하고, 자신이 표현하는 성별로 대하는 실천들은 성별 불일치로 인한 괴로움과 불안을 해소한다.²⁶⁾

G씨(30대, 트랜스젠더 남성)은 파트너와 합가를 하며 편안하고 안정적인 집을 경험한 사례다. G씨는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해 현재는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인정하는 파트너와 함께 동거 중이다. 과거에도 이전 파트너와 동거를 한 적이 있지만 그 당시 파트너는 G씨의 성별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아 불화를 겪었다. 그래서 G씨에게 현재의 집은 더욱 편안한 장소로 경험된다. 자신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경험은 G씨에게 “제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현재의 집을 인식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니까 환경 자체만으로 봤을 때 지금 지금 건물의 연식이 오래됐어요. 오래된 집이고. 창문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으로도 굉장히 노후가 많이 된 집이에요. 많이 노후가 된 집인데, 그럼에도 노후화 된 게 막, 막 크게 불편하거나 그렇지 않을 정도로 그냥, 그냥 되게 제 마음이 되게 편안한 공간인 것 같아요. 공간의 어떤 조건? 연식? 그런 것보다도 제가 제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애착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G씨는 자신을 인정하는 편안한 집에서 예전 원가족 집과 직장에서 할 수 없었던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자유롭게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편안한 감정과 성별의 수행은 그동안 감춰야 했던, 문제의 몸이었던 몸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신을 더욱 살피며 운동도 열심히 하는 지금의 G씨는 일반적으로 집하면 떠올리는 따뜻하고, 애착이 있는 감정을

26) Faye, S. 2022. 『트랜스젠더 이슈: 정의를 위한 주장』. 돌베개. 64.

경험하며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확장하고 재생산하고 있다.

“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운동할 수 있는 거. 그런 거에 더 관심이 좀 많이 가서... 네! 운동 기구 설치할 수 있는 거... 창, 벽 문틀에 이렇게 다는 거... 그런 거 하고 그런 거?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운동할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은 제 몸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별적인 재현보다도 제가 일단 제 몸에 관심이 없었고, 몸에 관심이 없었고 몸을 방치했었고, 제 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몸이, 몸이 별로 좋지 않았으니까 그냥 딱히 살피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는 변화하는 모습들 하나하나가 다 뭔가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과정이고, 제 몸에 변화를 주고 싶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몸 관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좀 의식이 바뀐 것 같아요.”

D씨(30대, 트랜스젠더 남성)도 위와 같은 사례에 속한다. 그는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동료들로부터 인정받고, 지지를 얻어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재생산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은 쉽지만 않았다. D씨와 함께 살고 있는 동료들은 여성주의 운동을 함께 하며 만난 지정성별 여성들이고, 그는 이들을 지정성별 여성을 수행할 때 만났기에 현재 자신이 표현하고 인지하는 성별정체성을 얘기하기가 힘들었다. 더욱이 현재의 자신이 인지하는 성별정체성을 부정하는 기간이 길었기에 명확하게 동료들에게 커밍아웃하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많은 고민 끝에 같이 사는 동료들에게 자신이 트랜스젠더 남성임을 이야기하고 이들과 소통하는 긴 시간을 가졌다. 주지하듯이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과정은 사례마다 다르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왜냐하면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대해 부정하기도 하고 의문을 던지기도 하며, 불안하게 요동치는 수많은 시간을 갖기 때문이다. 어쩌면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하는 것은 수많은 의심과 부정, 그리고 고민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정체화의 과정은 홀로 이뤄지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과 혹은 먼저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한 사람과 자신의 고민과 불안, 그리고 의심들을 함께 소통하며 자신의 성별을 정체화한다.²⁷⁾

D씨는 많은 소통 끝에 다행히 동료들의 이해와 인정을 받았고 안정적으

로 트랜지션을 진행할 수 있었다. “동료들에게 트랜스젠더로 인정받는 경험이 현재 정체성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만큼 D씨에게 함께 사는 동료들의 지지와 응원은 현재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부정하지 않고 긍정할 수 있는 힘이였다.

“저는 제 직장 동료들이랑 제 식구들이랑 그리고 그 이제 정체화하면서 만났던 트랜스젠더 친구들이~ 저를 트랜스젠더로 만들었다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하하하(웃음) 왜냐하면 저는 디나이얼(부정)도 너무 길었고. 끝까지 버텼거든요. 이전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약간 버티고 부정하고 계속. 이제 욕망을 인정을 안 하고 진짜 끝까지 버텼었는데... …중략… 근데 저는 식구들이나 친구들이랑 동료들한테 “트랜스젠더다.” 혹은 “애가 트랜스 남성이다”라고 인정받는 그 경험이 저한테~ 정체성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건 지금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공간을 중심으로 사실 관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직장도 사실은 그런 하나의 공간이잖아요. 그게 되게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내가 선언으로 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 트랜스젠더였어.” 이게 아니었거든요. 계속, 계속 의심하고, 계속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하는 과정이었어서. 그게 저한테는 관계가 갖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D씨의 구술에서도 또 하나 주목해야 점은 공간이다. 동료들과 함께 거주를 하는 공간이 있었기에 이들과 안정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고, 이 관계는 공간에 다시 착근해 현재 사는 집을 매우 편안한 장소로 구성할 수 있었다. 이런 장소에서 D씨는 여유있게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부정하지 않고 긍정하고 확신하며 재생산할 수 있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항상 사회에서 느꼈던 유별나게 돌출되거나, 어긋나고 불화하는 감정이 아닌, 장소에 꼭 파묻히는 경험, 즉 자신에게 꼭 맞는 편안한 집의 경험을 했고, 이를 통해 D씨는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확정하고 확장할 수 있었다.

27) *ibid.*

“근데 지금 현재 집에서 살게 되면서, 지금 집이 신축이기도 하고. 또 층이 다르긴 하지만 (동료들과) 같이 살고 있고,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식구들이 생기면서 생활 감각이라는 게 뭔지 생겼거든요. 조금씩 쌓이고 있어요. 내 공간을 내 기억이랑 내 취향이 있는 걸로 채우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스타일이나 신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갈 만큼의 여유를 만들고, 그걸 다 식구들이랑 나누고, 그 안에서 인정받고, 그걸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런 게 제 생에 없었더라고요. 여기 들어와서 알았어요. ‘원래 있는 거구나. 남들은 이런 걸 가지고 사는 거구나’ 그리고 그 시간이 축적된다는 느낌 있잖아요. 과거에 무언가 쌓여서 사람들이 사진 찍고 기념품을 남기고 이런 것도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한테는 다 짐이니까. 그리고 이사 하면 유실되는 거니까. 이랬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게 되는 거예요. 항상 딱 최소한의 무언가만 갖추고, 나머지는 만들면 짐, 버리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냥 쌓아두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꺼내볼 수 있고,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취미생활 같은 걸 할 때, 뭔가를 살 때에도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나의 공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관계이기도 하고요. …중략… 우선은 이제 친구들이랑도 그렇고 식구들이랑도 그렇고, 이제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 작가들이나 페미니스트 감독들, 전시 작가들, 이런 사람들 문화적인 것들 보는 거 되게 좋아해서~ 뭐 연극 포스터도 그렇고. 아니면 영화나 이런 거 보고 오면 맨날 그런 인쇄물들이 쌓이잖아요. 그런 거 붙여놓기도 하고. 또 그림 계속 그렸으니까~ 그 화구들도 정리해 놓고. 그리고 집에 책이 되게 많은 편인데. 책을 자주 보는 거를 가까이. 그리고 이제 참고 도서는 그냥 멀리~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고. 저한테 그냥 저한테 최적화된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정체성의 확정뿐만 아니라 자신을 인정하는 동료들과 함께 살면서, 그리고 몇 년 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서 D씨는 자신의 삶의 기록과 시간이 축적되며 쌓이는 경험을 한다. 취향과 취미의 물건이 쌓이는 곳, 과거 여행의 사진이 전시되는 곳, 관심이 있는 책과 포스터들이 배치되어 있는 곳 등 현재의 집은 D씨의 삶의 서사를 통합적으로 배치하며 안정

적인 자아 정체성을 구축하게 한다.

헤흐트(Hecht)에 따르면 집에 배치된 물건들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묶으며 물질적 서사를 구축한다고 한다.²⁸⁾ 과거부터 쌓여 있는 집안의 물건들은 개인의 취향과 취미 등을 전시하는 것을 넘어 정체성의 다양한 편린들을 물질화하며 통합한다는 것이다. 테일러(Taylor)는 이를 자아의 투영으로써 집 꾸미기라는 개념으로 의미화하기도 했다.²⁹⁾ 아래 사진에서 보듯이 D씨 방에 배치된 다양한 무지개 포스터와 연극 포스터, 그리고 많은 책 등은 그의 관심사뿐만 아니라 정체성의 편린들을 물질화한다. 여성주의 운동을 하고 공부하는 학생이자 퀴어인 D씨는 집의 물건들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들을 물질화하며 자신의 서사를 통합한다.



<그림 1> D씨의 삶의 서사를 보여주는 물품들

과거 대학생 시절 여러 번의 자취 생활, 그리고 직장과 장기간 여행으로 자주 이사를 해야만 했던 D씨는 집에 삶의 서사가 쌓이는 경험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기록들은 항상 이사에 부담이 되는 짐이었기에 버려 하는 물건일 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나의 공간인 것 같아요.”라는 구술에서 알 수 있듯이 동료들과 관계를 맺고, 자신의 성별정체

28) Hecht, A. 2001. Home sweet home: tangible memories of an uprooted childhood, in Miller, D. (ed.) *Home Possessions: Material Culture Behind Closed Doors*. Oxford: Berg, pp. 123 - 145.

29) Taylor, M. 2006. 'Furniture is a kind of dress': interiors as projection of self, in McMinn, T., Stephens, J. and Basson, S. (eds) *Contested Terrains: SAHANZ Conference Proceedings*. Adelaide, SA: The Society of Architectural Historians of Australia and New Zealand, pp. 531 - 535.

성을 확장하는 것과 더불어 자신의 정체성을 담은 물건과 기록들을 축적하며 안정적인 자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D씨에게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알란과 크로우가 말한 것처럼 유대감과 소속감을 주는 안락한 장소이자 후스가 말한 것처럼 성별 이분법과 이성애 규범이 가득한 세상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보호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일종의 틈이자 경계로 경험되고 있다.

E씨의 경우 주변에서 자신의 집을 “퀴어스럽다.”라고 말할 정도로 집 곳곳에 무지개 깃발, 무지개 조명, 길벗체³⁰⁾ 포스터 등을 배치했다. 또한 거실을 책과 책상을 중심으로 꾸미며 자신의 또 다른 정체성을 표현했다. 퀴어이자 연구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듯 물건의 배치를 통해서 표현하면서 다양한 정체성을 통합하고 있다.



<그림 2> E씨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집 꾸미기

“일단 저희 집에 오는 친구들은 와서 참 퀴어스럽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집에 처음에 들어가면 맨 앞에 우리 여기 용산의 집에 있는 제람님이 해주신 저기 길벗체~ 포스터가 일단 붙여져 있고요. 왼쪽에

30)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로 만든 폰트를 말한다.

그게 붙여져 있고. 문 들어오면 옆에, 한쪽으로 요거, 한쪽으로는 무지개를 붙여놨고요. 그다음에 정면으로는 그림하고 조그마한 무지개 불빛이 좀 있고요. …중략… 트랜스젠더 그 색깔, 깃발 제가 그려 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걸어놨고.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제 약간 기본적으로 좀 카페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거든요. 카페 같은 느낌으로 기본적으로 거실을 만들었죠.

E씨. 40대. 트랜스젠더 남성.

다양한 물건의 배치는 이처럼 자아의 지속적인 축적 효과를 주며 오늘날 유동적인 세계에서 삶의 항구성을 물질화한다.³¹⁾ 특히 사회에서 비체로 존재하는 트랜스젠더에게 자신의 성별정체성과 삶의 서사를 축적하는 집 꾸미기는 경계와 틈으로 작용해 ‘숨 쉴 수 있는 장소’로 기능한다. 그러나 이러한 집 꾸미기는 집이 어느 정도 안정과 정주성을 담보할 때 가능하다. 예컨대 D씨는 현재 사는 집이 공공임대주택으로 6년 동안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삶의 서사를 축적할 수 있었다.

A씨의 경우 D씨와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지만 정주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집을 꾸미지 못하는 상황이다. 상술했듯이 D씨는 고시원 생활을 하다가 운이 좋게 성소수자 대안 가족을 꿈꾸는 집에 방 하나를 얻어 2명과 함께 한 집에 살고 있다. 함께 살고 있는 룸메이트 모두 퀴어이기 때문에 D씨는 이 공간에서 자신의 성별정체성이 돌출되거나 혹은 숨겨야 하는 상황을 마주할 필요가 없다. 서로의 성별정체성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상황에서 D씨는 훨씬 더 자유롭게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표현하고 펼치고 있다.

“근데 이건 조금 다른 맥락인데 제가 오히려 이렇게 고시원 같은 데 계속 살았으면, 지금은 이제 남성 패싱³²⁾으로서 이렇게 남성으로서 보여야 될 테니까~ 뭔가 남성 그러니까, 의류든가 그런 것만 이렇게 챙겼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지난주 퀴퍼만 해도 이제 일부러 퀴퍼라고 되게 엄청 화려한 치마를 입고 왔거든요. 퀴퍼 당일 날에, 이제.

31) Noble, G. 2004. ‘Accumulating b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Studies*. 7(2). 233-256.

32) 패싱(passing)이란 사회의 한 구성원이 외관, 언어, 행동 등의 요소를 통해 특정 범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젠더 교란자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그런 옷을 이제 지금 룸메가 막~ 바이너리 이런 거에 되게 갇혀 있고, 막 그거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그냥 집에서 월피스 입고 있거나 치마 입고 있거나 이래도, 막~ “A는 되게 진정성 없다.” 그렇게 농담 식으로 말하고. 이렇게 “너 진짜 티지(트랜스젠더)맞냐?”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좀 약간 아이러니하기는 한데, 지금 집이어서 좀 여성복을 아직 안 버리고 있어요.”

A씨. 30대. 트랜스젠더 남성.

위의 구술에서 알 수 있듯이 A씨는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오히려 과거 지정성별을 표지하는 옷을 입으며 이분법으로 나뉜 성별을 벗어나 자유로운 성별을 표현한다. 자신이 어떤 성별을 표현해도 인정받고 이해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쌓인 집이기에 이러한 실천이 가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A씨가 얘기하듯이 만약 여타 고시원이나 성별 이분법의 장소에서 살았다면 그는 남성으로 패싱되길 바라며 적극적으로 남성성을 수행했을 것이다. 자신을 비체로 만드는 사회에서 물질화된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원화된 성별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A씨가 거주하는 집은 굳이 남성성을 수행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기에 그는 좀 더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실천할 수 있었다.

그러나 A씨는 D씨와 다르게 정주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다. 전세 계약 당사자인 룸메이트가 갑자기 이사를 가거나 혹은 전세 계약이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D씨는 다시 불안한 주거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A씨의 표현대로 “언제 떠날지 모르는” 감각을 항상 지니며 자신의 물품들과 물건들을 제한한다. 현재의 집이 월가족 집과 다르게 안전한 집이지만 오래 살 수 없다는 감각은 D씨, E씨와 대비되며 자신의 서사와 삶의 기록이 집에 축적되는 것을 막는다. 그리고 이는 안전한 집이지만 뿌리내릴 수 없다는 불안정성을 덧칠하며 현재 집에 대한 묘한 긴장감을 만든다.

“지금은 여기가... 지금도 항상 그런 감각이 있기는 해요. ‘내가 여기를 언제 떠나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항상 짐이 너무 많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습관이 됐어요. 이제 책 같은 거도 잘 안사거나, 물건 같은 것도 주변에 많이 나눠주는 편이고. 옷도 잘 이렇게... 옷

을 사면 그만큼 버리거든요. 그런 감각을 항상 가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은 여기가 내 공간이라는 감각은 있죠. 그리고 월가족 살던 집이랑은 다르게 좀 안전한~ 집이다.”

D씨가 구술하는 “내 공간이라는 감각”, “안전한 집”이라는 경험은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안정적으로 재생산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조건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집에만 한정되어선 안 된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안전하지 않을 때 안전하고 편안한 ‘집’과 같은 장소가 더욱더 다른 곳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트랜스젠더가 자신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직장의 경험을 살피고, 이것이 이들에 주는 의미들을 살핀다.

■ 집으로써 직장

F씨(40대, 논바이너리)는 현재 여성주의 단체에서 운영하는 책방에서 일하며 편안한 감정을 경험하고 있다. 그 전 직장에서는 머리를 기르는 것에 대해 손님이 시비를 걸기도하고, 상사에게 눈치가 보이기도 했다. 특히 탈의실을 이용하는 것에 많은 곤란을 느끼며 사람이 없는 시간에 이 공간을 이용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 직장에서는 동료들 역시 퀴어가 대부분이라 굳이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숨길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책방을 방문하는 손님들 역시 이 곳이 퀴어 관련 책방이라는 곳을 알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F씨는 긴 머리에 대해 곤란을 느낄 필요가 없다. 이러한 환경에서 F씨는 그 전 직장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편안하고 자유로운 집의 경험을 직장에서 하고 있다.

“정말 편한 게 있는 거죠. 제가 뭐 어떤 사람이건 별로 딱히 문제가 안 된다는? 빵집에서 일할 때~도 머리가 좀 길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여성 직원들 머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망으로 씌우고 다녔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다녔거든요. ...중략... 손님 중에 한 번 있었던 일인데, 남자... 중년에서 노년 정도 되는 분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남자가 왜 머리 기르고 그러고 있냐?” 제가 무시를 하기는 했는데. 그런 게 (여기는) 완전히 없으니까~ 여기서는 그게 완전 마음이 편한 거에

요. 손님으로 오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여기가 퀴어 관련 책방이다.”, “퀴어 책방이다. 페미니즘 책방이다.” 그런 정도는 알고 오시거나 아니면 정말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셔서 크게 신경 안 쓰는 정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손님이 아니더라도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다들 그냥 퀴어니까, 크게 이거를 딱히 숨기거나 할 필요가 없는 환경이 된 거잖아요. 그게 너무 편하긴 하더라고요.”

D씨(30대. 트랜스젠더 남성)도 자신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직장 동료들 덕분에 트랜스젠더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고, 안전하게 재생산할 수 있었다. 상술했듯이 D씨는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부정하는 기간이 길었다. 이 부정하는 기간 동안 집에 함께 사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쉽게 말하지 못하며 고민의 나날을 보내야 했다. 이런 순간에 D씨는 직장 동료들에게 자신이 인정받고, 지지받는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집과 같은 편안하고 안정적인 감정을 직장에서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당시 자신의 집에서조차 숨겨야 했던 성별정체성을 풀어놓으며 일종의 숨구멍과 같은 틈으로 경험되었다.

“근데 초반에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게 저희 사무실에 터프³³⁾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못하고 있었죠. 근데 그게 단지 그 사람이 트랜스 혐오적이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터프 자장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 같은 게 계속 저랑 부딪혔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 많이 싸웠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나갔고. 나오고 나서 얘기했죠. 나오고 나서 다른 구성원들한테 ‘이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고. 그 전반의 과정을 다 지켜봤고, 대부분이 다 응원을 했고. 그리고 이미 제가 근무할 때 이미 퀴어들이 있었어서 그 안에. 다 트랜스 친구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와 정보를 오히려 구해다 준다거나 이랬었고. 센터장님도 ‘그건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수자인 거니까 잘해줘야겠다.’ 약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 (중략) 네~ 저는 초반에는 확실히 식구들보다 직장에서 더 정체성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었고 안정감을 느꼈죠.

33) 터프(TERF)는 Trans-Exclusionary Radical Feminist 약자로 트랜스젠더를 배제하고 혐오하는 매우 우경화된 페미니스트를 말한다.

그 안에서.”

F씨와 D씨의 경험은 A씨(30대, 트랜스젠더 남성)도 공유한다. A씨는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숨겨하는 고시원 생활을 할 때, 당시 직장에서도 역시 성별정체성을 단속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콜센터를 다니며 여성성을 수행해야 했던 A씨는 어디에서도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풀어놓을 수 있는 안전지대를 갖지 못한 상황이었다. 물론 그는 반상근으로 일하는 트랜스젠더 인권 단체에서는 자유롭게 성별정체성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곳조차 코로나가 가장 심했던 국면에 제대로 갈 수가 없게 되면서 자신이 갈 자리가 없는, 매우 숨 막히고 불안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

“콜센터여가지고, 콜센터 (코로나) 터졌을 때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 사무실을, 제가 이제 다른 구성원들의 안전을 위해 안 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걸리면 이제~ 단체 한 대여섯 분들이랑 다 같이 업무가 안 돌아가니까.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되게 갈 데가 없더라고요.”

이런 상황은 좁은 고시원 방에서 실신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면서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지기까지 했다. 그래서 그에게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인정해주는 여성 단체로 이직은 매우 중요한 의미로 다가온다. 가끔 여성 단체라는 성격으로 인해 여성으로 패싱되는 불편이 있지만 자신의 현재 성별정체성을 인정해주 직장은 A씨에게 하나의 틈새와 안식처가 되었다. 이 경험은 트랜스젠더 룸메이트와 트랜스젠더 지인들의 불편한 직장 경험과 대비되며 직장의 안전과 편안함을 더욱 상기시킨다.

“내가 여성 단체에서 이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를 여성으로 패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소리가 이렇고 머리가 얼마나 짧은 상관없이~ 약간 운동권? 이기 거니 하고, 페미니스트라서 머리가 짧게 거니 하고. 당연히 오히려 여성으로 패싱되는 경향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불편감이 아예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인데, 근데 어쨌거나 사실 제가 제 주변에 다른 TG(트랜스젠더)들처럼 패싱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 받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저희 룸메만 하더라도 이

전 직장에서 여자 화장실 쓰는 거 가지고 이렇게 좀 말이 나온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 감사하죠. …중략… 그냥 그렇게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좀 여성으로 본다하더라도 어쨌거나 제 정체성을 밝히면 이제 “아~ 그러시군요.”하지, 이제 막 “뭐야~” 이러지는 않으니깐요. 사람들이.”

A씨는 이 직장을 다니면서 트랜지션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다. 이직 초기에는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미스럽게 다시 다른 직장을 구해야 경우가 생길까 트랜지션을 망설였지만, 직장에 적응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의료적 트랜지션을 진행할 수 있었다. 자신이 어떤 성별을 표현해도 인정해주는 직장의 존재는 A씨가 생계 걱정 없이 트랜지션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트랜스젠더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직장은 ‘편안한 집’과 같은 틈과 경계로 경험되며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확정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발판으로 작용한다.

■ 집으로써 커뮤니티와 관계의 중첩

계급, 인종, 젠더 같은 모든 형태의 사회적 관계와 마찬가지로 섹슈얼리티도 일정 부분 지리적으로 형성된다. 예컨대 이성애는 어디서나 발생한다. 이성애자는 공공장소에서 손을 잡고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반면에 성소수자들은 이성애를 어디서나 보며 이런 경험들을 통해 자신들의 섹슈얼리티는 철저히 제자리를 벗어나 있다고 본다. 즉 섹슈얼리티에 대한 무언의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느낀다.³⁴⁾

그러나 성소수자 커뮤니티(성소수자 클럽, 카페, 음식점 등의 장소 및 공동체)에서 이러한 규범은 투과되지 못한다. 다른 곳에서 위반과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들의 섹슈얼리티가 여기서는 상연되고 수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이성애 규범성과 젠더 이분법은 위반되고, 소수자성이 다수자성으로 역전이 된다.

브라운(Brown, M)은 이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속성을 일종의 ‘벽장’(closet)으로 은유한다. 벽장은 외부로부터 자신을 감출 수 있는 공간이

34) Cresswell, T. 2012. 『짧은 지리학 개론 시리즈: 장소』, 심승희 역, 시그마프레스. 162-163.

고 자신만의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은밀한 공간이다.³⁵⁾ 따라서 벽장은 외부와 경계를 지으며 자신의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한다. 혹스가 얘기한 것처럼 벽장은 외부의 위협과 억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일종의 틈과 경계로서, 즉 ‘집’으로 이해될 수 있다.³⁶⁾ 이 사람들에게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이 경계 밖에서 수행하는 이성애자라는 가면에서 벗어나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수행할 수 있는 ‘집’으로 의미화된다.³⁷⁾

“뭔가 TG(트랜스젠더)들 만나고 싶을 때 그냥 바로 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 …중략… 커뮤니티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동네에 이제 CD바³⁸⁾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제 그 바에 저희는 이제 자주 놀러 가는데, 거기를. 그냥 그런 업소가 하나 있는 거 외에는... …중략… 오늘도 “호르몬빨 안 받아서 좀 피곤하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좀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사실 좀 뭐랄까, 그... 이제 수술 같은 것도, 저는 이제 탑 수술하기 전에 특히 자주 들락날락했거든요. 뭔가 이제 좀 멀리 사는 친구들한테 연락하기, 매번 연락하기도 그렇고 하니깐. 그냥 수술 앞두고 되게 좀 오만 가지의 감정이 들었어요. 뭔가 이렇게 ‘드디어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마냥 좋은 것만은 또 아니잖아요. 오만 가지 감정 드는 거에 대해서 그냥 막 놀러가서 그 스태프 누나들이랑 얘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A씨. 30대. 트랜스젠더 남성.

A씨는 호르몬 치료로 인한 컨디션 문제, 그리고 가슴절제 수술의 불안과 부담 등 트랜지션을 진행하며 생기는 불편과 불안을 동네에 있는 CD바에 가며 풀어놓는다. 아무리 직장이 편안한 장소라고 해도 트랜지션의 고민을

35) Brown, M. 2000. *Closet Space: Geographies of Metaphor from the Body to Glob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36) b. hooks, *Yearning: Race, Gender, and Cultural Politics*, (Boston, MA: South End Press, 1990), 43-47.

37) Brown, K 외. 2018. 『섹슈얼리티의 지리학』. 김현철 외 역, 이매진.

38) 크로스 드레싱 바(cross dressing bar)의 줄임말로 지정성별 여성, 남성들이 다른 성의 옷을 입는 장소다.

동료들과 나누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멀리 살고 있는 트랜스젠더 지인들을 찾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그래서 A씨는 CD바를 운영하는 트랜스젠더 여성 스태프들과 고민을 나누며 안정을 얻는다. A씨에게 이 장소는 쉽게 얘기하지 못했던 성별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감정을 풀어놓는 틈과 경계로 작용하며, 동시에 안전하게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수행할 수 있는 벽장으로써 집 의미를 갖는다.

이런 경험은 I씨도 공유한다. I씨는 젠더퀴어로 정체화한 후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댄스 동호회에서 인정을 얻었다. 이 장소에서 I씨는 편하게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수행할 수 있었고, 다른 퀴어와 함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사회에서 그리고 집에서조차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숨겨야 했던 I씨에게 이 동호회는 하나의 틈과 안전한 집으로 경험되었다.

“저희가 커뮤니티가 이제 모이는 데가 있어요. 모여서 뭘 하거든요. 그 공간이 제일 소중한 것 같아요. 정말 안전한 공간이어서... 사람도 많고. 서로에 대한 인정을 해줘서 그렇죠.”

I씨. 20대. 젠더퀴어.

결국 커뮤니티가 벽장으로써 안전한 집으로 경험되는 것은 이들을 인정해주는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관계가 자체가 하나의 완충망으로 작용하면서 기존 사회의 이성애 규범과 성별 이분법이 투과되는 것을 막는다. 또한 이 완충망의 관계는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를 특정 지역으로 이주하고 그 지역에 착근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여성 성소수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망월과 은평, 트랜스젠더 여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태원과 다양한 성소수자들의 관계가 착근된 지역은 지속적으로 성소수자들을 이 지역으로 유인한다. 이 착근된 관계가 성소수자들에게 안전을 제공하며 그들의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둘이 같이 살지만 저는 혼자 살 때는 무슨 문제가 있어도 좀 부르기가 거리가 있으니까? 부르기가 좀 미안하고 애매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부를 수 있다. 부르기에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다.’ 그리고 친구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가는데 그렇게 멀지 않고 금방 갈 수

있고. 그런 게 좀 확실히 안정을 주는 것 같긴 해요. 이전 집에서 살 때 감기 걸려서 되게 상태가 안 좋았었을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그때 제가 딱히 부르진 않았는데, 친구가 친구랑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아프다”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먹을 걸 좀 챙겨왔던 일이기도 해서... 그런 경험도 있고. 가능하면 친구들이 사는 지역에서 살고 싶다.”

F씨. 40대. 논바이너리.

“처음에는 그냥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도 거기로 갈래.’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살아 보니~ ‘여길 오길 잘했다.’ 내가, 내가 갑자기 집에 쓰러지면... 그때는 이제 제가 이사오고 나서 되게 오랫동안 정기적인 일자리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이 쓰러지면 직장에서 연락을 할 텐데 직장이 없으니까. ‘내가 쓰러지면 누구라도 발견을 해주겠지. 우리 고양이들이 굶어 죽기 전에 누가 와주겠지.’ 이런 생각?”

I씨. 20대. 젠더퀴어.

F씨와 I씨 모두 현재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은평구로 이주한 이유는 이 지역에 사는 지인들 때문이다. 자신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성소수자들이 인근에 산다는 것이 이들에게 위안을 주고 안전한 감각을 줬다. F씨와 I씨가 표현하듯이 아프면 바로 달려올 수 있는 친구가 인근에 있는 곳, 내가 쓰러지면 누구라도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은 현재 사는 집의 정주성을 높이며 주거 안정의 요소로도 작용한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직장과 커뮤니티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트랜스젠더의 주거 불안을 극복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집이라는 한정된 공간만을 얘기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가 증명하듯이 집은 사회적 진공상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성애 규범과 성별이분법과 같은 사회관계가 침투되며 주거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의 주거권과 주거 안정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주변 관계로부터 자유롭고 차별받지 않는 다양한 장소들

을 만들어야 한다. 집뿐만 아니라 집과 같은 틈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장소와 관계의 형성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 즉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 친화적 환경을 지역과 직장 내에 구성하고, 구축하는 일이 절실히 요구된다.

2.5. 불안한 미래 전망과 주거 불안

“근데 그런 건 있겠쬬. 이 집 들어오면서도 사실은 다른 임대주택이 나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동이 청년 미래 공동체 주택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신혼부부 동이랑 유공자 동이 훨씬 크거든요. 청년 동은 두 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신혼부부 동이에요. 근데 신혼부부 동은 들어가기가 훨씬 쉽고, 집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서른다섯 살이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서른아홉까지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으면 노년기까지 복지 제도가 완전히 주거 제도가 비어 있는 거예요. 없어요. 대책이 저한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전세를 살거나 임대주택이 될 가능성이나 아니면 집을 살 가능성은 또 없는 거죠. 제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중략... 당장 서른아홉 살 이후가 안 그려지고. 네. 안 그려져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걸 해결하는 어찌면 안정적인 방법은 결혼인데, 저는 제가 남성 파트너를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현재~ 네. 모르겠어요.”

D씨. 30대. 트랜스젠더 남성.

“지금 제 주변 이제~ 쿼어 커플들을 봐도, 이렇게 법적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장 저희 회사에도 이제 레즈비언 직원분도 계시거든요. 되게 파트너랑 오래 살았는데 뭔가 가족 수당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되게 고민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저는 이제 그렇게 제 명의로 계약을 하거나 할 만큼 돈을 모아본 적이 없어서, 계약을 못해봐서 이걸 실감은 못하지만...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 보면 어쩔 수 없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누나가 몇 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누나가 이제 전문직이어서 돈을 잘 버는 것도 있긴 한데 되게 쉽게 또 집을 잘 구했거든요. 대출도 잘 받고.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내가 아는 그 지인들은 되게 마음 고생하던데~’ 이런 거 생각은 들더라고요.”

A씨. 30대. 트랜스젠더 남성.

위의 구술들은 주택 정책에서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가 소외받는 양상과 그 상대적 박탈감을 잘 보여주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동성혼뿐만 아니라 파트너십 자체도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혼 가구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은 주거와 관련해서 제공되는 신혼부부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다. 가령 신혼부부는 신혼부부임대주택, 신혼희망타운,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 최초 특별공급, 행복주택 신혼부부 공급 등과 같은 주택 공급과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이자부담 경감 등과 같은 자금지원의 혜택을 동시에 받으며 주택 마련의 기회를 늘리고 주거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그러나 성소수자를 비롯한 결혼 제도에서 벗어난 개인들은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 위의 A씨의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법적 결혼을 못하는 성소수자 커플은 시스젠더 이성애 부부가 받는 주거 정책에서 빗겨나며 주거 불평등을 경험한다. 더불어 D씨의 구술에서 알 수 있듯이 주거 정책에서 배제는 현재의 주거 불안뿐만 아니라 미래의 주거 설계 또한 불안정하게 하며 삶에 대한 안정적인 경로를 그리지 못하게 한다. D씨의 경우 현재 운이 좋게 국가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에서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며 살고 있지만 이 혜택이 끝난 이후 자신의 미래와 적절한 주거에 관한 전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D씨가 간파한 대로 현재와 미래의 주거 불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결혼 제도로 편입이지만 그는 법적성별을 정정하지 않을 계획이기 때문에 이 방법 역시 불가능하다.

결국 위의 두 구술은 국내 주거 정책이 결혼, 즉 인구의 재생산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퀴어 이론가 할버스탐은 이를 ‘재생산적 시간성(reproductive temporality)’ 개념으로 이론화한다. 그에 따르면 개인의 생애 과정, 즉 출생-결혼-출산-죽음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은 자연적인, 혹은 정상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애 과정은 권력에 의해서 구조화되어 있고, 국가 차원에서 관리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출산은 단지 이성 부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의 재생산과도 연결된다. 따라서 국가는 인구를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 ‘이성애, 정상가족, 재생산’을 축으로 개인의 생애 과정을 분배한다.³⁹⁾ 즉, 인구 재생산을 위한 ‘임신-출산-양육’으로 이뤄지는 경로가 강조되며 이 경로를 중심으로 다양한

39) J. Halberstam, *In a Queer Time and Place* (New York and London: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5), 1-9.

제도들과 정책들이 조직된다. 최근 국내에서 강조되는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정책은 이들 집단을 재생산적 시간성의 트랙에 편입시키려는 국가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시기별로 특정한 공간(청년행복주택 - 신혼부부 대상 아파트)과 접합되며 실제화된다.

그러므로 재생산적 시간성은 이성애 규범적이고 성애화된 시간-공간적 성격을 갖는다. 재생산(출산) 가능한 여성의 '몸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과 공간을 배치하고 나열함으로써 성애화된 규범을 창출하는 것이다.⁴⁰⁾ 그리고 당연히 재생산적 시간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성소수자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을 분할하고 배제하며 이성애 규범의 정상성을 강화한다. 재생산을 기준으로 펼쳐지는 시간과 주택 정책에서 성소수자들은 표상되지 않으며, 비정상의 부류로 편입될 수밖에 없음을 주거 경험을 통해서 체감한다.

40) Ibid., 4.

2.6. 요약 및 결론

트랜스젠더는 원가족의 삶부터 독립 이후의 삶, 그리고 미래의 주거 전망까지 매우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 있다. 특히 원가족 부모의 집은 불안, 불쾌함, 그리고 소외의 의미로 경험되었다. 가족 내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지정성별에 따른 호명과 성역할의 요구는 트랜스젠더 자녀에게 성별 불일치감을 심화하며 원가족 집을 매우 불편하고 숨막히는 곳으로 경험하게 한다. 자신의 성별정체성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공개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구성원들은 이를 무시하거나 가족 유대감을 해치는 유별난 아이로 표상하며 이들에게 정서적 소외를 야기한다. 결국 트랜스젠더에게 원가족 집은 ‘넘을 수 없는 허들’, ‘정서적으로 굉장히 폭력적인 환경’ 등으로 경험되며 탈구된 감각으로 이해된다.

원가족으로부터 독립을 해도 트랜스젠더는 지속적으로 주거 불안을 경험한다. 무엇보다 이성애 규범과 성별 이분법으로 짜인 사회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쉽게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트랜스젠더에게 고시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삶은 이곳의 좁은 환경 문제만이 아닌 다양한 문제를 노출시킨다.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다중의 시선을 마주쳐야 하는 상황에서 트랜스젠더는 자신이 현재 표현하는 성별정체성을 숨기고 단속해야 하는 불편을 경험한다.

이 문제는 다중이용시설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원룸과 같은 일반 주택에서 생활을 할 때도 트랜스젠더는 주변의 시선을 살피며 자신의 성별정체성 수행을 제한한다. 가령 지인들이 자신의 집을 방문할 때 트랜스젠더는 매우 불안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자신이 현재 표현하고 인지하는 성별정체성을 표현하는 옷과 물건들이 나열된 집은 지인들에게 아웃팅의 단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다. 트랜스젠더는 집을 계약할 때도 매우 심한 곤란에 처한다. 법적성별과 현재 표현하는 성별정체성이 불일치하는 트랜스젠더에게 집 계약 자체가 아웃팅의 위험을 주기 때문이다. 더불어 의료적 트랜지션 비용 부담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을 벗어나기 힘든 상황을 마주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미래의 주거 전망이 밝지도 않다. 주지하듯이 국내 주거 정책이 성별 이분법과 이성(異性)간 혼인, 혈연으로 이뤄진 정상가족 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트랜스젠더는 주거 정책에서도 자연스레 배제된다.

이처럼 트랜스젠더는 이성애 규범과 성별이분법이 작동하는 사회에서 매우 불안정한 위치에 처하며 수많은 주거 불안을 경험한다. 항구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지우는 이 사회에서 트랜스젠더가 그나마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일종의 틈과 경계가 필요하다. 즉, 편안하고 안전한 느낌, 다른 말로 하면 집에 있는 느낌(feel at home)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무엇보다 요구된다.

그래서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경계와 틈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쓴다. 자신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커뮤니티와 접촉하기도 하며, 자신을 인정하는 지인들과 함께 살기도 한다. 어쩌면 트랜스젠더에게 집이란 바로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곳이면 어디든 집이라고 볼 수 있다. 이곳에서 트랜스젠더는 안정적으로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수행하고 재생산하며 집의 경계를 만들고 있다.

3장 보론: 제자리를 벗어난 신체와 탈구의 감각

본 장에서는 트랜스젠더가 겪는 주거 불안은 아니지만 이들이 직장이나 일상의 삶에서 겪는 다양한 차별과 배제, 그리고 소외를 살피려고 한다. 주거 불안은 집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것이기에 이들이 겪는 주거 불안을 더 넓은 시야로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경험하는 차별과 배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성별 불일치와 고용 불안

오늘날 사회는 여성의 출산하는 몸을 기준으로 하는 성애화된 시간과 공간을 창출함과 동시에 이성애 규범과 성별 이분법을 수행적으로 혹은 강압적으로 요구하며 이에 맞는 신체를 생산한다. 따라서 이 신체와 맞지 않는 신체들은 제자리를 벗어난 신체로 표상되며, 문제가 되는 신체 혹은 의심스런 신체가 된다. 이분법적 성별체계에 위반하는 신체로서 물질화되지 못한 비체(abject)라고 말할 수 있다.

더군다나 한국 사회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모든 개인의 법적 성별이 모두 드러나며, 노동, 의료, 교육 등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법적 신분증명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성별과 자신이 인지하고 표현하는 성별이 어긋나는 트랜스젠더는 다양한 사회 영역의 접근 기회를 차단당하며 차별과 배제를 경험한다. 즉 주민등록증 번호를 기반으로 공고하게 조직되는 한국 사회는 트랜스젠더를 지속적으로 비체화하며 이들이 사회의 주체로서 설 자리를 지운다.

“10년 동안 할 수 있었던 게 서비스직... 전문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민증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민증 없는 일만 해도 계속 했었거든요. 민증 안 들어가도 되는 일. 사정상 얘기해가지고 받을 수 없으니까~ (월급을) 친구 걸로(친구 통장으로) 받는다든지. 주민등록증도 못 들어가서 그랬던 일만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쪽으로만 찾아서 10년을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경력이 다 그쪽으로밖에 안 쌓이잖아요. 전문직 쪽으로는 쌓이지 않아서, 바뀌고 났는데 직장을 구하려고 하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서비스직 지금 다시 하기 싫은데, 일도 힘들고 급여도 짜고 해서~”
J씨. 30대. 트랜스젠더 남성.

“신분이었지요. 신분. [질문자: 성별 불일치 때문에?] 네네. 거기에서 오는 오해와 어떤 선입견? 사람들이 날 바라보는 어떤 그런 게 쉽지 않은 않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정규직으로 가기는 아예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가고 싶어도 못 갔죠.”
L씨. 40대. 트랜스젠더 남성.

J의 구술에서 알 수 있듯이 법적 성별, 즉 주민등록증 번호와 다르게 정체화한 트랜스젠더는 고용시장에서 주체로 인정되지 못하고 숨겨지고, 보이지 않아야 하는 비체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의 언급처럼 주민등록증을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는 직장에 비공식적이고 불안정하게 취직을 하거나 지정성별 남성 지인의 통장으로 월급을 받는 등 철저하게 자신의 존재를 숨기며 비가시화된 비체로 노동시장에 머문다.

L씨 역시 J씨와 비슷한 경험을 공유한다.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위해 요구되는 법적 성별은 구직 시장에서 L씨에게 하나의 허들로 작용했다. 혹여 구직 시 이 불일치가 드러난다면 그 이후의 발생할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차별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L씨의 표현대로 정규직은 아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장벽으로 경험됐다.

국내에는 트랜스젠더 통계 자료가 없어 이들의 고용 불안정성을 명확하게 논하기 어렵지만 EU 보고서(2015년)에 따르면 유럽에 거주하는 트랜스젠더는 소득 하위 25%에 들어갈 확률이 시스젠더인 사람들에 비해 높다.⁴¹⁾ 이 사실에 비춰보면 국내의 많은 트랜스젠더 또한 불안정한 고용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추측된다.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벗어날 기회를 가져도 법적 성별(지정 성별)과의 불일치는 이 기회를 포기하게 한다. 예컨대 정규직 전환을 위한 서류와 공문서에서 요구하는 법적 성별은 이들의 아웃팅 위험을 높이며 스스로 안정적인 고용 기회를 포기하게 한다. J씨의 경우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정규직

41) Faye, S. 2022. 『트랜스젠더 이슈: 정의를 위한 투쟁』. 강동혁 역. 돌베개.

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주민등록 번호를 노출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이 기회를 상실했다.

“거기서 계약서를 쓰기 전이었거든요. 정직원이 되기 전이어서, “정직원을 하자고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서 급여를 올려주겠다.”고 왔어요, 사장님이. 계약서를 못 쓰겠는 거예요. 주민번호를.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 본다고 그리고 며칠 뒤에 거기를 그만뒀어요.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J씨. 30대. 트랜스젠더 남성.

트랜스젠더가 지정 성별로 취업을 했다 해도 고용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지속된다. 무엇보다 지정 성별로 취업은 자신이 인지하고 표현하는 성별을 감추고 위장해야 하는 불편함과 불쾌함, 그리고 매순간 자신이 아웃팅이 되어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중층적으로 야기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G씨의 경우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지정 성별 여성으로 일을 했지만 직장에서 요구하는 성역할에 지속적인 괴리감과 불쾌감을 느껴야 했다. G씨는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직장에서는 다른 자아를 수행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분리를 시켜야 했고, 이는 해리 장애의 위험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런, 그런 모습(여성의 모습)을 많이 보여야 되고 연기를 한 거죠. 거기 들어가면 저는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좀 분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살 수가 없는... [질문자: 정말 그럼 불일치가 심해지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심했죠. 좀 약간 살기 위해서, 저를 좀 이렇게 해리, 해리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를 좀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좀 하게 분리되게끔... ‘이건 내가 아니야.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어.’ 약간 그런 식으로...”

G씨. 30대. 트랜스젠더 남성.

A씨의 경우 아웃팅이 되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 자신의 현재 표현하는 성별로 만든 SNS 계정에 트랜스젠더 고객을 몰래 혐오하고 조롱하는 직장의 태도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이게 직장 동료들에게 노출되며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 이 일이 있기 전, 동종 업계 직장으로 이직이 약속되어 있었지만 이미 소문이 다 퍼진 상황에서 이직은 취소되었고, 여타 동종 업계의 재취업도 불가능했다.

“이제 제 정체성도 뭔가 아웃팅이 됐고. 그리고 이제 뭔가 제가 주변의 어떤 경력을 활용하고 가기에는, 이제 저는 이제 원래 입사가 약속돼 있는데도 잘렸으니까. 그때 이제 자신감이 확 떨어진 거예요. ‘내가 이 업계에서 앞으로 일을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경력 없이 바로 취직을 할 수 있는 거 콜센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콜센터를 그때부터 일을 하게 됐었어요.”

A씨. 30대. 트랜스젠더 남성.

아웃팅으로 인해 수년 간 쌓아온 자신의 경력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된 A씨는 구직의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경력을 많이 요구하지 않는 콜센터로 취업하며 직장에서 지정 성별 여성의 역할을 계속 수행해야 했다. 그 결과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숨기고 위장해야 하는 불편과 계획했던 호르몬 치료를 미뤄야 하는 곤란한 상황이 이어졌지만 이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 이곳마저 그만 두면 당장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그냥 경력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거기밖에 없어서,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간 거긴 한데. 어쨌거나 서비스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목소리로 일을 하는 곳이고. 하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도 좀 트랜지션을 못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ftm 호르몬이 목소리부터 변하잖아요. 그리고 호르몬 치료를 하면 그 목소리가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일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근데 내가 콜센터마저 관두면은 갈 데가 없으니까~”

A씨. 30대. 트랜스젠더 남성.

이처럼 트랜스젠더는 직장에서 자신의 성별 불일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불안정한 노동을 이어간다. 현재 자신이 인지하고 표현하는 성별로 구직

이 된 경우 법적 성별과 불일치로 인해 비공식적이고 불안정한 노동을 해야 한다. 지정 성별로 취직을 했다 해도 자신의 현재 성별정체성을 감추고 지정 성별로 위장을 해야 하는 곤란과 디스포리아를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한다.

성별 문제만이 아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호명하는 이름 자체도 그 사람의 성별을 표지한다. 많은 경우 이름 자체가 성별에 따라 범주화되기 때문에 이름은 그 사람의 성별을 일정 부분 확정한다. 이에 대해 트랜스젠더들은 스스로 부여한 이름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어나가지만 공적 서류 등은 주민등록의 이름을 요구하며 지정성별을 환기시킨다. 따라서 현재 정체화한 성별과 확연히 다른 지정성별의 이름을 갖고 있는 트랜스젠더의 경우 이름으로 인해 일자리를 놓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렇죠. 이름이... 이름하고 너무 생긴 게 다른데 어떻게 믿고 (과외를) 맡기겠어요. [질문자: 그래서 놓친 과외가 많나요?] 많죠. 많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힘들었던 게 눈에 보였고, 이름 때문에라도 구하기가 쉽지 않았죠. 성별 정정보다 수술보다도 개명이 더 빨랐어요.”

H씨, 40대, 인터섹스(현재 여성으로 정체화).

구술자 H씨는 인터섹스로 트랜스젠더와 같이 지정성별과 다른 성별로 정체화를 한 사례다. H씨는 원가족에서 지정성별 남성으로 호명되며 20대 후반까지 남성 역할을 수행했고, 자연스럽게 이름 또한 지정성별을 표현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자신이 인지하는 성별과 지정성별의 불일치에 고민하던 중 인터섹스인 것을 알게 되고, 그 이후로 수술을 거쳐 현재는 여성으로 성별 정정을 한 상태다. 그런데 H씨는 개명을 성별 정정보다 먼저 했다. 무엇보다 일자리를 구해야 했던 그녀에게 남성을 표지하는 이름은 구직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이다.

구직 관련은 아니지만 G씨 또한 이름 때문에 불쾌감을 느끼고 트랜지션 전 개명을 한 사례다. G씨는 어린 시절부터 지정 성별에 의문이 들고 불쾌감을 느꼈지만 트랜스젠더로 정체화는 상대적으로 늦었다. 대학원 생활을 하며 본격적으로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고민하던 G씨는 이때부터 지인들이 지정 성별을 환기하는 이름을 부르는 것에 불쾌감을 느꼈다. 이 이름을 부

르며 자신을 여성으로 패싱하는 상황 자체를 견딜 수 없었던 G씨는 트랜스젠더로 완전히 정체화를 하기 전에 중성적인 이름으로 개명을 했다.

“대학원 생활하면서 확실히 여성으로 비춰지는 거, 여성... 누군가 나를 여성으로 대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불쾌감을 느꼈고. 그리고 이름으로 그렇게 패싱되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름을 개명을 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체화하기 전에 제 이름을 먼저 바꾸게 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G씨. 30대. 트랜스젠더 남성.

H씨와 유사한 맥락에서 G씨 또한 이름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다. G씨는 정부에서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직업훈련’에 참여했지만 이를 끝까지 이수하지 못하며 취업 지원을 받지 못했다. 무엇보다 이 훈련에서 집체교육을 하며 출석을 부르는 게 G씨에게 아웃팅 위험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아무리 주변에서 출석 체크를 신경 안 쓴다고 해도 트랜스젠더 당사자에게는 그 상황 자체가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노출해야 하는 위기로 경험되었다. G씨는 이때의 상황을 “주변이 하얘지”는 “난감”한 것으로 표현하며 그 때의 그 위기와 곤란을 재현했다.

“그게 직업학교(직업훈련) 출석 문제 때문인데요, 카드를 이렇게 딱 찍으면 출석이 되는데 (강사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니깐... 그 문제가 조금... 아무래도 남자 이름인데 사실 관계자들은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학생들은 몰랐죠.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출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이제 좀 (담당자와) 얘기 주고받다가 “그럼 저 그냥 안 다니겠습니다.” 했었죠. (다른 사람들이 출석 체크에) 집중을 하는지 마는지 모르겠는데, 혼자 생각은 일단 주변이 하얘지니까... 대답을 해야 되나 손만 들어야 되나... 손만 들면 또 이렇게 출석부만 보고 부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러면 두세 번씩 불러가지고... 그냥 그 난감...”

G씨. 30대. 트랜스젠더 여성.

이처럼 트랜스젠더는 고용시장에서 요구하는 법적 성별과 불일치로 인해

불안정하고 분절적인 노동을 경험한다. 그리고 이 노동의 비공식성과 불안정성은 이들을 지속적으로 비체화하며 고용 시장에서 주체로서 설 자리를 지운다. 이는 비단 고용 상황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자신의 자리가 없는 탈구의 느낌과 감정은 성별 이분법이 작동되는 모든 곳에서 트랜스젠더를 비체화하며 이들을 제자리를 벗어난 신체로 생산한다.

■ “저 형 또 장이 안 좋네!": 성별 이분법 공간의 곤란

상술했듯이 사회가 기본적으로 성별 이분법의 체계로 구조화되어 있기에 트랜스젠더는 구직 및 고용 안정뿐만 아니라 성별이 요구되는 일상의 매순간마다 제자리를 벗어난 탈구의 감정과 불안을 경험한다.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는 성별 이분법의 공간을 마주할 때마다 이 공간에 맞는 신체 역할을 하며 자신을 위장하거나 혹은 그 공간을 피하며 곤란을 모면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정성별의 수행과 회피는 성별 불일치를 더 심화하여 불쾌감과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기도 한다.

“거기가 기숙사 학교였었는데, 기숙사는 이제 방도 이제 남녀로 나뉘고, 샤워실도 남녀로 나뉘니까. 샤워할 때나 그럴 때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옷 갈아입거나 이럴 때... 아무래도 뭐 옷 갈아입는다거나, 또 생리대를 숨길 수가 없다는 거. 그런 게 다 불편했어요. 탈의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집에서 옷을 입고 나왔었고. 화장실은 그냥 남자 화장실 이용했는데 좀 같이 안 가고 혼자 가고 그랬어요.”

B씨. 20대. 트랜스젠더 남성.

“그 ○○○○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목욕탕 같은 데 다 같이 가거든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국가대표) 상비군을 가도 목욕탕을 같이 써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저는 거짓말하고, 맨날 안 가고. 그럴 때부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옷도 같이 갈아입고 이런 거 막~ 그때부터 “뭐지?” 좀 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중략... 이성의 신체를 보는 것도 너무 민망한~ 제 신체를 보여주는 것도 싫고. 둘 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교복 입는 것도 너무 싫었는데, 운동하니까

체육복을 많이 입고 다녀서 좀 나왔었고.”

J씨. 30대. 트랜스젠더 남성.

B씨와 J씨는 학교에서 단체 생활을 해야 했다. B씨는 고등학교를 원가족 집과 떨어진 대안학교로 가며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고, J씨는 학교 운동부 활동을 하며 자주 합숙 생활을 해야 했다. 일반적으로 기숙과 합숙생활은 같은 지정성별 별로 이뤄지기 때문에 트랜스젠더에게 단체생활은 매우 불편하게 경험된다. 특히 탈의나 샤워처럼 같은 지정성별의 신체를 대하는 순간은 J씨의 구술처럼 “이성의 신체를 보는 민망함과 제 신체를 보여주는 싫음”이 교차하며 자신의 성별 불일치와 이에 따른 디스포리아를 더욱 확인한다. 그리고 B씨의 언급처럼 이 순간은 어떻게든 대처해서 피하고 싶은 상황이 된다.

탈의실, 샤워실 이외에도 구술자들이 얘기하는 가장 불편한 장소는 바로 화장실이다. 대부분의 구술자들이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공공장소를 이용할 때 매우 신경을 쓰고, 곤란한 장소로 화장실을 언급한다. 특히 성별 정정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에게 화장실 사용은 자신의 성별 불일치를 다시 확인하는 장소로 경험되며, 여성 화장실과 남성 화장실 둘 다 사용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을 만든다. 이에 따라 구술자들은 직장 생활이나 공공장소에서 아예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혹은 불편함과 불안함을 감수하고 현재 정체화한 성별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남녀가 한 공간을 쓰는 화장실을 찾는 불편을 겪기도 했다.

“제가 화장실을 이용을 못했죠. 왜냐하면 신분 카드는 2번(여성 번호)으로 돼 있는데 여자 화장실로 가면 사람들은 나한테 남자 화장실로 안내해 주고. 이런 상황들... 그래서 화장실을 잘 이용하는 못하는 거. 이런 불편함은 계속 있었어요.”

D씨. 30대. 트랜스젠더 남성.

“화장실 문제가 제일 크죠. 들어갈 때마다 좀 이상하게 쳐다보기도 하고. 좀 들어가는 게 눈치 보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변하기 전(호르몬 치료하기 전)에는 다 여자로 알고 대하고 했으니까, 중간부터 뭘가(남자 화장실로) 바뀌기에도 좀 그렇고.”

C씨. 20대. 트랜스젠더 남성.

“이제 화장실 문제가 조금 있긴 한데... 제가 1층에서 일을 하면 3층이나 4층 화장실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대가 가까이 있거든요. 이제 조금만 나가면 ○○대니까 학교 화장실을 이용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화장실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1층에서 제가 남자 화장실을 이용했을 때, 뭔가 애매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까 봐 그런 식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G씨. 30대. 트랜스젠더 남성.

D씨와 C씨는 직장생활을 하며 겪는 화장실 문제를 토로하고 있다. D씨는 당시 다니던 직장에서 커밍아웃을 한 상태였고, 동료들 역시 D씨를 정체화한 성별로 인정하며 그의 젠더 수행을 도왔다. 그러나 문제는 D씨가 업무 차 출장을 갈 때마다 발생을 했다. 출장을 가는 장소에서 D씨는 법적 성별인 여성으로 인식하고 대하고 있기에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여성 화장실을 안내하곤 했다. 그러나 D씨는 의료적 트랜지션(호르몬 치료)로 이미 목소리와 외형이 변한 상황이었기에 여성 화장실로 가기도 난처했다. 이에 따라 D씨는 출장 시에는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C씨의 사정도 D씨와 비슷하다. C씨는 현재 다니는 직장에 지정 성별 여성으로 입사했지만 입사 후 호르몬 치료를 진행하며 목소리와 외형이 많이 변한 상태다. 그렇지만 동료들은 여전히 C씨를 지정 성별 여성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남성 화장실을 이용하기에는 부담스런 환경이었다. 그래서 C씨는 여성 화장실을 이용하지만 변한 외모로 인해 놀라고 의심스러워하는 여성들의 시선으로 화장실 이용에 부담을 겪는다.

G씨의 경우 직장 생활할 때 자신이 인지하는 성별과 다른 여성 화장실을 쓰는 것에 너무 많은 불편을 느껴 직장이 위치한 층이 아닌 다른 층 혹은 다른 건물에 있는 남성 화장실을 이용 했다. 행여 직장과 같은 층에 있는 남성 화장실을 이용하다 동료들을 마주칠 위험을 막기 위한 행동이지만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다른 층과 건물로 가야하는 수고와 불편함을 감내해야 했다.

직장 생활에서 마주하는 화장실의 곤란은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을 경우에도 꼬리표처럼 계속 따라오곤 한다. E씨의 경우 과거 다니던 직장에 입사할 당시 트랜스젠더 남성임을 밝혔고, 남성성을 수행했다. 그러나 주변의 시선이 그의 젠더 수행을 막으며 그에게 불편을 주기도 했다. 같은 층을 쓰는 다른 부서의 사람이 그와 같이 남성 화장실을 쓰는 것에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결국 E씨는 이 시선에 부담을 느껴 다른 층의 화장실을 이용해야만 했다.

“이제 총무팀에서는, 총무팀은 그거는 나이 드신 분들이 짝 있는 곳이다 보니까... 거기 총무팀에 있는 어떤 분이 “내가 남자 화장실 쓰는 거 기분 나쁘다.”는 이야기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었는데... 그래서 사실 그 이야기 듣고 우리 팀장님 같은 경우는 “무시하고 쓰라”고 했는데, 나는 불편하니까 다른 층 가서 썼어요. 그런 식의 상황도 있었고.”

E씨. 40대. 트랜스젠더 남성.

화장실 곤란은 직장생활에서만 해당되지 않는다. 친구를 만나든가, 아니면 일을 보기 위해서 집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화장실 문제는 시작한다. 남녀가 분리된 공중화장실은 역시 트랜스젠더가 사용하기에 불편이 따른다. 그래서 G씨는 공공장소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성별이 나뉘지 않고 함께 쓰는 화장실을 힘들게 찾아다니거나 아예 화장실 갈 일을 만들지 않기도 한다.

“사실은 화장실 문제가 되게 힘들었는데, 화장실을, 밖에 나가서 화장실을 거의 자주 안 갔어요. 그냥 아예 화장실을 갈일을 만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잘 안 나갔어요. 집에서 잘 안 나가는 걸 선택했고. 굳이 나가서 화장실 이용할 일 있으면은 그런 데 있잖아요. 딱 딱 한 명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화장실...”

G씨. 30대. 트랜스젠더 남성.

법적으로 성별 확정(정정)을 했다 해도 화장실 이용의 불편은 여전히 남아 있다. 남성 소변기를 이용하기 불편한 트랜스젠더 남성의 경우 모든 용무를 좌변기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이 모습이 동료 지정성별 남성들에게 의

아하게 보여 아웃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저 형 또 장이 안 좋네!”라는 J씨의 구술은 좌변기를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장이 안 좋은 것처럼 위장을 해야 하는 불편과 이에 따른 긴장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다행히도 중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서여가지고 일하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는 건데, 저랑 같이 들어갔던 친구는 그냥 방진복 입고 또 똑같은 일만 계속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는 더 스트레스인 거예요. 저는 사람들 없는 시간 피해서 일부러 나가도 되거든요. 방진복을 안 입고 일하니까. 그래서 몰래, 몰래 사람들 안 갈 시간에 저는 항상 화장실에 갔고. 그리고 같이 생활하면 같이 가자고 되게 말이 말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화장실 갈거야~” 하면 애들이 막 따라 나와요, 동생들이. “형 같이 가요.”하면 “나 손 씻으러 가는 거야” 손만 씻고 나와요. 그리고 좀 있다가 다시 화장실에 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자꾸 애들이 그러니까 그냥 대변이 마렵다고 해서 그래서 약간 저 화장실을 많이 가는 형으로 대개 알고 있죠. 그래서 대변을 보러 많이 간다는 식으로 해서, 설사에 장이 안 좋다고. 그래서 예전에 알았던 동생들, 친구들은 지금 제가 장이 안 좋은지 엄청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인식이 박혀 놓으니까 “저 형 또 장이 안 좋네!” 이렇게...

J씨. 30대. 트랜스젠더 남성.

이러한 경험은 L씨 역시 공유하고 있다. L씨 역시 성별 정정(확정)을 했지만 친구들과 함께 음주를 하거나 어울릴 때 화장실 사용에 곤란을 겪었다.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친구가 같이 가자고 하고, L씨가 올 때까지 친구가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등 동성 친구들과 화장실을 함께 쓰는 것에 많은 불안을 느꼈다. 그럴 때마다 임기응변으로 말을 돌리고 같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피했지만 성별 확정(정정) 이후에도 자신을 숨기고 단속해야 하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저희가 용변 보는 게. 거기에서 오는 불편함은 솔직히 많죠. 엄청 많

죠. …중략… 친구들이랑 지낼 때는 제가 이제 자꾸 (좌변기) 칸으로 들어가잖아요. 친구들이 의아하게 자꾸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화장실 술 먹다가도 가도 보통 남자들 보면 소변기에서 다 보잖아요. 술 먹다가 저는 갈 때마다 칸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화장지도 챙겨야 되는 부분도 있고 좀 불편하죠. 저는 그래서 제가 화장실도 같이 안 가려고 노력도 할 때도 많았고, ‘재 갔다 오고 나면 내가 가야지.’ 하는데 친구가 일부러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야 너 왜 화장실에 오고 싶다면 왜 안 와?”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난처한 경우. “됐어. 빨리 와 가자.” 이런 식으로 말 돌리고 그런 거는 비밀비재해요.”

L씨. 40대. 트랜스젠더 남성.

경향신문에 따르면 트랜스젠더는 학교 다닐 때부터 물을 잘 안 마시고 가급적 화장실을 안 가고 참으며, 이에 따라 방광염 등 건강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⁴²⁾ 한다. 구술자들의 언급처럼 그만큼 트랜스젠더에게 지정성별로 분리된 화장실 사용은 성별 불일치를 확인하는 곤혹스럽고 불안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 “어릴 때 잘 못 올라가서 그래요.”: 유별나게 돌출되는 존재

성별 이분법 장소에서 마주치는 불안과 곤란은 탈의실, 샤워실, 그리고 화장실과 같이 자신의 신체를 노출해야 하는 곳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법적 성별을 확인해야 하는 공공시설, 병원 등의 장소 또한 화장실과 같은 이분법 장소의 불안을 재현하며 이 장소들의 문턱을 높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트랜스젠더는 아파서 병원을 가야 하는 상황에도 쉽게 병원에 가질 못한다. 의료보험증에 기입되어 있는 법적 성별로 인해 항상 의문스런 시선과 아웃팅의 위험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세 많으신 여자 의사 분이었는데. 이비인후과를 아파서 갔는데, 처음에는 진료를 보시다가, 차트를 보더니 계속 저를 이렇게, “뭐

42) 경향신문. 2020.02.22. “한국서 ‘통계에도 없는 존재’로 산다는 것”.
(<https://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002220600015?www>)

야?” 벌레 보듯이 보더니, 이게 왜 이러네요. 그래서 “아~ 어릴 때 잘못 올라가서 그래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말이 되네요. 그래서 “그냥 그래요. 어릴 때 잘못 올라가서요.” 이러니까 이러면 웬만하면 넘어가지거든요. 근데 그분은 사람들 밖에 다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이거 바꿔야지 그러면~ 이거를 바꿔야지 이렇게 사는 게 말이 되냐”고 계속 큰소리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친구랑 저랑 같이 있었는데, 친구는 다행히 저에 대해서 알기는 했는데,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나왔어요.”

J씨. 30대. 트랜스젠더 남성.

J씨는 성별 불일치를 의아해하고 캐묻는 의사의 행동에 당혹감을 느끼며 치료를 받지 못하고 나와야 했다. 보통 이런 경우 그는 “어릴 때 호적에 잘못 올라가서 그래요.”라며 성별 불일치에 대해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며 넘어가곤 한다. 그러나 계속 큰 소리로 불일치를 확인하는 의사의 언행은 J씨를 그 자리에서 유별나게 돌출시키며 주변과 맞지 않는 어색한 존재로 만들었다.

공문서가 요구되는 상황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다. 가령 요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보건증이 요구되는데 이 보건증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간단한 검사 자체가 트랜스젠더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 탈의를 하고 소변 검사를 하는 과정은 자신의 성별 불일치를 노출시키며 아웃팅의 가능성을 열어놓기 때문이다.

“보건소에서 보건증 검진 받는 것도 힘든데, 또 여자 칸으로 들어가 가지고 탈의하고 이거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겉모습이 우선 남성이니까 서류를 안 보고 “○○○ 씨 이거 하세요.” 그냥 이래요. “저기 들어가세요.” 하면 다 남자 쪽으로 알려주긴 하는데, 서류를 이제 봤을 때는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어쨌든 여자 탈의실에서 나와야 되는 서류인 거잖아요. 그래서 보건증 받으러 가는 것도 좀 싫었는데, 이걸 안 하면 일을 못하니까~ 받고. 그거(보건증)는 좀 엄청 접어서 내요. 직장에다가.”

J씨. 30대. 트랜스젠더 남성.

J씨는 요식업 관련 일을 하기 위해 보건증을 받아야 했지만, 지정 성별에 따라 나뉘지는 검사 과정 때문에 이 역시 받기가 쉽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J씨의 목소리와 외형을 보고 남성 탈의실과 화장실을 안내하지만 J씨는 지정성별 여성으로 서류에 기록되어 있기에 이 장소에서 머뭇거리게 된다. 병원 역시 J씨의 성별 불일치를 확인하며 그를 의심스런 시선으로 바라본다. J씨에게 이 상황 자체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 성별로 나뉘지는 검사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자신이 유별나게 돌출되는 존재로 인식되며 이 장소에 자신의 자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보건증을 받아도 문제는 계속 이어진다. 어렵게 받은 보건증을 직장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것조차 쉽지 않다. 왜냐하면 보건증에 자신의 지정 성별이 기록되어 있어 남성으로 일하고 있는 직장에 아웃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모면하기 위해 보건증을 여러 번 접어 성별 기록을 안 보이게 제출을 하기도 하지만 서류 하나로 매번 고민을 하고 불안과 불편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 J씨에게 힘겹게 다가온다.

트랜스젠더 여성 J씨의 경우 보건증 때문에 구직에 난항을 겪는 사례다. 그녀는 요식업에 종사하기를 원했지만 여기서 요구하는 보건증 때문에 쉽게 구직 기회를 잡지 못했다. 보건증을 받기 위해 지정 성별 남성의 화장실과 탈의실을 가야 하는 순간은 그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장벽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여성의 외형과 목소리로 남성의 공간을 이용해야 하는 순간 자체가 그녀에게 심한 디스포리아로 경험되었다.

“얼마 전에 보건소를 갔다가 불편했던 일이 있어가지고... 그 보건증을 검사를 못하고 나왔거든요. 그런 걸 못하겠더라고요. 화장실 이리저리, 남자화장실 가야 하고, 탈의실을 그쪽으로 가야 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 모습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 게 좀 안 되더라고요. 보건증 검사를 못하고 나왔던...”

J씨. 30대. 트랜스젠더 여성.

이처럼 성별 이분법의 장소가 아니더라도 성별이 요구되고 호명되는 매 순간마다 트랜스젠더는 제자리를 벗어난 느낌을 받는다. “공문서 관련된 서류가 최고로 힘들었다.”는 J씨의 구술처럼 트랜스젠더는 일상의 순간마다 불쑥불쑥 튀어나는 성별 확인과 서류 등의 요구로 불안과 곤란을 경험한다.